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중에 맞은 2022년에도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서 더욱 정진하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월22일 (토) 제 1858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한 반발로 '넌스' 증가

RNS, 미 종교 없는 '넌스' 증가원인과 기독교우파의 정치참여 상관관계 보도

현재 카톨릭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없다고 하는 '없음(Nones)'의 기원이 바로 1990년대 종교적 우파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포괄적인 이론은 코네티컷대학의 사회학 부교수인 루스 브라운스타인(Ruth Braunstein)이 작성한 새로운 논문에서 요약되었다. 작년 말에 '종교사회학저널'에 게재된 "정치적 반발이론: 종교 분야에 대한 종교적 권리의 항 평가"라는 제목의 그녀 논문은 종교적 우파와 종교적으로 비종교적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제공한다.

브라운스타인은 종교학자와 일상적인 종교 종사자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경향에 근거해 연구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없음"이라고 불리는 수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 1972년 일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1990년대와 2010년대에 다시 급증했다. PRRI(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무종교인이 전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백인 주류 개신교 또는 백인 가톨릭보다 높은 비율이다 (America is still reacting to the religious right, in more ways than one: The shadow of the religious right is long, and may be hindering the ability of modern-day Christian conservatives to stifle radicalism).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변화에 대해 숙고해왔으며 일부에서는 근본 원인이 정치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론에 따르면 넌스(Nones)의 부상은 1990년대의 종교적 우파의 부상



에 대한 반발이 대부분이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캠페인이 공공 광장의 모든 종교와 점점 더 연관되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한 종교적인 미국인, 특히 제도적 종교에 대한 연결이 약한 자유주의자 중 일부가 드디어 궁극적으로 종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대신 "없음"으로 자신들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브라운스타인은 이 인과관계가 실제로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하다고 가정한다. 그녀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의 증가는 "광범위한 반발"의 한 예일 뿐이라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나 더 높은 권력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종교적 우파에 대한 "협소한" 반발이 있으며 이 모두가

현대의 종교 및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최근 RNS(Religion News Service)와의 인터뷰에서 "종교 우파에 대한 반발이 실제로 종교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종교를 하는 방식, 종교적인 방식,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치적인 보수 종교라는 종교적 우파의 브랜드를 협소하게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더 좁은 형태의 반발이 있습니다."

브라운스타인은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데이터를 통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미국인이 2012년 19%에서 2017년 27%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바로 종교적 우파의 정치와의 협착이나 밀월관계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의 도덕적 타락에서 환멸을 이기지 못한 젊은 미국인들이 대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주기 위해 스스로 '넌스'로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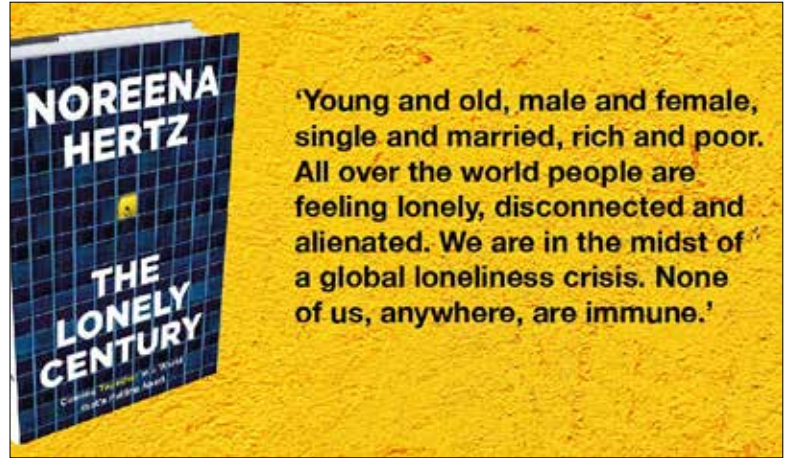
종교에 관해 글을 쓰는 하버드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는 지역 사회 기관 및 일반 기관과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브라운스타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퍼트남은 이러한 추세가 일종의 반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1990년경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이들은 문화전쟁의 미국, 종교가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브랜드와 연관됐던 미국에서 성인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회문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가장 눈에 띄는 종교지도자 같은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조합이 발생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넌스'의 부상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며,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결과적인 그룹"이 됐다고 평가했다.

(3면으로 계속)



'Young and old, male and female, single and married, rich and poor.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feeling lonely, disconnected and alienated. We are in the midst of a global loneliness crisis. None of us, anywhere, are immune.'

교회공동체 모임 절실하다!

리더십저널, 노리나 허츠의 '고립의 시대' 소개와 대안 제시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비즈니스경영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한 영국의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Noreena Hertz)는 그의 책 '고립의 시대'에서, 스마트 기기로 '형식적 연결', 즉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오히려 더욱더 고립감이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그녀는 미디어를 통해 연결돼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표정 읽기나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 등을 감지하는 인간 고유의 소통능력을 갈수록 잃어감으로서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있다고 보면서, 실제로 2시간 이상 컴퓨터나 TV 스크린에 노출됐던 아이들이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고립은 정서적으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오랜 시간 외로운 상황에 놓여있던 쥐가 동료를 만나게 하는 실험에서, 쥐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The Lonely Century: How to Restore Human Connection in a World That's Pulling Apart).

허츠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봉쇄상황은 가히 외로움의 세기를 열었다고 할 만큼 치명적이어서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더 외로움을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공격성을 띄게 되고,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이는 자칫 과거 극우정부가 난립해 일으킨 세계대전의 두려움을 회상시킨다고 보았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흥진 목사



4면 푸른초상 송호민 목사



16면 인터뷰 이수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명준모 위장간 내과
Joon Mo Myung, MD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www.rptseast.org

MISSIO SEMINARY, BETWEEN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미시오 신학교와 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January 13th 2022

복음의 임팩트로 부르신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여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및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석사(M.R.E)	2년	
	선교학석사(M.Miss)	2년	
	신학석사(Th.M)(설교학)	2년	M.Div학위 학력자

2022학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주. 야간)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마감: 2022년 1월28일(금) 오후6시
원서교부처: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입학시험: 2022년 1월29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2시
개강부흥회: 2022년 1월31일(월) - 2월2일(수) 저녁7시45분
문의처: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학감 경기태 목사: 917-733-7387
사무실: 718-463-7163 / www.rptseast.org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6. 입학 전형료 (\$30)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발행인 칼럼

전통의 변화, 그 가능성과 어려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창 논의 중이다. 진리의 문제라면 왜 논의하겠는가. 진리라면 기쁨으로 따르면 될 뿐이다. 진리 문제가 아니기에 논의를 하는 것인데 교회 본당 스크린을 바꾸면서 강대상을 임시로 변경시켰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와서이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웅장한 원목 나무로 된 강대상이 회중석에 비해 높고 있었고 멀리 있었다. 성도들이 모두 올려다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자체가 권위가 있어 보였지만 회중들은 설교자의 얼굴만 보고 우렁찬 소리를 숨죽이고 들어야 했다. 이런 강대상의 배치는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는 교회의 자부심이요 자세이기도 하였다. 필자는 그 전통에 담겨진 귀한 영적 의미는 언제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임시로 변경한 낮은 강대상, 가까운 강대상에서의 설교를 성도들의 너무 친근히 여기는 것이 아니던가. 교회는 성도들의 feedback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곳 아니다. 외면할 수 없는 설교하는 필자도 그렇다. 성도들의 얼굴표정을 보고 설교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느낌뿐 아니라 실제 그랬다.

설교는 대화가 아니라 선포이다. 설교는 지식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복음의 외침이다. 설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 여길 수도 없다. 이 설교의 근본은 타협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 그런데 선포와 외침도 권위적 선포가 있고 역동적 외침이 있다. 설교에서 말하는 권위는 절대적이지만 주변 상황까지 권위적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칫 잘못하면 권위를 특정 공간과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아름다운 정당한 권위로 혼동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리아 없었지만 먼 강대상, 높은 강대상의 구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기 힘든 것으로 여긴다면 이 무슨 낭패이겠는가. 성도들이 가까이하기 힘든 강대상 위치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자를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저 멀리 있는 설교자만의 것으로만 여긴다면 이 무슨 비극이겠는가. 아무튼 임시 변경한 강대상으로 전통의 변화, 그 가능성을 보았다.

강대상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스크린 공사를 하면서 본당 앞에 있었던 십자가를 떼어 내어냈다. 그리고 스크린 공사 후에 떼었던 십자가를 바로 달지 않았다. 성도들이 궁금해서 묻는다. "언제 십자가를 다시 다나오?" "우리 본당 앞에 십자가는 아예 없었 것인가요?" 그렇다. 모두가 개신교인이고 개혁주의자들인 그 누가 본당 앞의 십자가를 우상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겠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지만 수십년 동안 본당 앞자리에 있었던 십자가가 계속 안보이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본당 앞의 십자가 부착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있기도 하였다. 필요한 논의가 전개된 것이다. 필자가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본당 앞의 십자가 부착을 금하고 있다. 필자는 십자가 부착의 위험성을 직시한 바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단 교회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 개 교회가 그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다소 있으리라. 일부 교단의 입장을 넘어서면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는 십자가 부착을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권고하기도 한다. 결국 우상으로서가 아니라는 견해와 함께 펼쳐는 방침이기에 그 또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신 형상으로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 자체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안이든 밖이든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기독교를 표하는 상징으로 여기기에 교회당 위에 또는 예배실 앞에 세워두는 것이다. 베드로의 회개를 이끌어낸 닭 울음소리, 그래서 닭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고 교회당 위에 닭 모양의 형상을 세워 놓은 교회도 있지 않던가. 교회의 상징이라면 닭보다는 십자가가 낫지 않은가. 아무튼 현대의 교회에서 십자가 부착 등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첩예한 기술들로 본당 앞을 수 놓으면서 자칫 현대기술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너무 신봉하여 본당 앞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는 그 어떤 것보다 현대기술이 교회 안에 우상화 될 위험성이 더 크다. 현대교회는 현대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되 철저히 경계해야 하리라. 아무튼 본당 앞에 오랫동안 부착했던 십자가 논의로 전통의 변화, 그 어려움을 절감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

BBC, 2020년 새해 새로운 다짐을 지키기 위한 5가지 팁 제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새해의 결심(New Year's Resolution)을 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엡4:2-23)를 원한다. 미국의 경제잡지인 INC에 따르면, 매년 미국 인구의 약 60%가 새해에는 바꾸고 고치고 이를 일들에 대한 다짐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중에 오직 8%만이 그 결심을 이룬다고 한다. 미국인의 2022년 새해의 결심 중 첫 번째는 실제로 새해 결심을 성취하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 세 번째

는 좋아하는 음식 먹기, 네 번째는 몸무게 줄이기,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여섯 번째는 행복해지거나 정신적으로 건 강하기, 일곱 번째는 더 건강해지기, 여덟 번째는 보다 나은 자 신이 되기, 아홉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열 번째는 의욕 적으로 살기이다.

BBC는 새해 결심을 이루기 위한 5가지 간단한 팁을 제시한다(5 New Year's Resolution Tips to Try for 2022).

US뉴스&월드리포트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르면 새해의 결심을 하는 사람 중 80%가 새해 2월의 2번째 주가 되면 운동, 몸무게 줄이기 등의 결심에 실패한다고 한다. 왜 수많은 사람이 새해의 희망을 품고 시작한 결심을 단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실패하게 되는 걸까? 이러한 이유에 대한 사회 과학자들의 설명은 "헛된희망증후군"(False Hope Syndrome)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 지름 길이다. 심리학자 레이첼 웨인 스타인은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

지적했다. 2. 구체적인 목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실

것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감성을 받거나 자신의 목표를 주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방



"헛된희망증후군" 비현실적인 높은 목표가 실패 원인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설정, 타인과 함께가 효과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쉽다고 믿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목표를 잡아서 실패 하게 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금연이나 금주, 혹은 지속적인 운동, 몸무게 줄이기, 행복해지기처럼 하루아침에 실현할 수 없는 무모한 목표를 잡아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음 해에 또 그 결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새해 결심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간단한 팁을 소개한다.

우리는 새해에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추측" 탓이라고 지적 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이 란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운동화를 구매하고 단거리부터 훈련해야 한다. 요리 배우는 것이 목표라면 일주일에 한 번 주방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행에 옮길지 구체적인 생각 없이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장을 화요일 오후와 토요일 아침에 다니 겠다"는 목표는 "더 자주 헬스장을 가겠다"는 다짐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옥스포드대학의 닐 레비 교수는 설명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는 새해계획을 단지 바람으로 끝나지 않게 해준다.

법이다. 영국 워릭대학교 존 미켈 철학교수는 사회적 요소가 다짐을 세우고 지키는 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우리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 된다면 이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부여잡는 것. 목표달성이나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작은 것부터 시작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

중요한 건 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실을 보는 것이다. 변화는 실제로 "오랜 시간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타난다고 레이첼은

3. 함께하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일,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Charisma Revival!
'이번 집회 목적은 배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능력(Power)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Authority)가 우리 목회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것(Demonstration)입니다.'
일시: 2022년 2월21일(월) -24일(목)
장소: 후러싱제일교회 (38-24 149th St. Flushing, NY 11354)
대상: 담임목사님, 사모님 (감리교 목회자 우선)
등록기간: 2021.12.21(화) - 2022.1.25(화)
등록비: 전액 장학금(숙소 및 식사 비용을 후원 교회들이 지원합니다)
주최: 글로벌 웨슬리 영성목회 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철, 한의준, 김정호)
강사: 앤드류 박 교수 (오하이오 감리교연합신학교), 이성철 목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김성찬 목사 (뉴욕 롱아일랜드 서지방감리사)
등록안내: 김진우 목사(joshua@metchurch.org)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lilyumc@hotmail.com)
등록링크: https://forms.gle/FUqh4gKBUCWvP6nD6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한...

(1면에서 계속)
할로란은 다음과 같이 한 마디로 결정짓는다: "종교와 무관한 유권자들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화당원인 만큼 거의 강력한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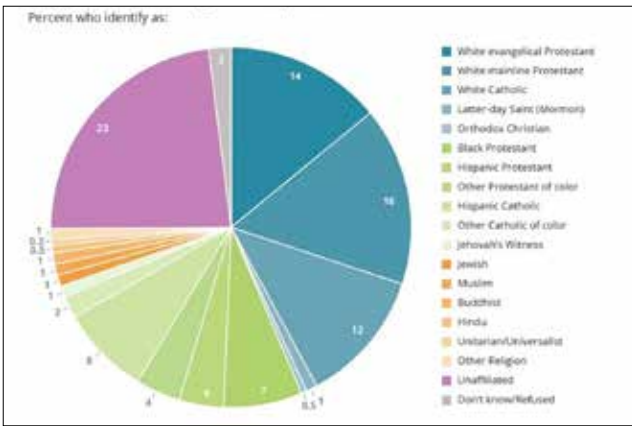
PRRI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에서 무종교 인구는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며

2019년 23%로 감소(3%p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8년 이전까지 실제 무종교 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07년 무종교 인구는 미국인 중 16% 뿐이었다. 2012년에는 19%를 기록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그 이후부터 무종교 인구의 감소세는 젊은 층의 종교계 유입이 한 몫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의 정치적 협착이나 도덕적 파행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넌스'는 영적, 정서적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독교 율타리에서 자라난 젊은 층은 교회에 실망해 기독교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오

히려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 등을 느끼는 젊은 비신자들이 영적인 것을 찾아 교회 등으로 오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다.

교회공동체 모임...

(1면에서 계속)

허츠는 외로움과 고립이 정치적인 힘뿐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발휘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업들이 이러한 영역을 선점해 "외로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면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각 사람의 미세한 취향과 행동을 모두 분석하고 "개인"에 맞춘 상품과 광고를 개발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다. 만약 내가 기업들이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상품과 광고의 효과를 제감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욱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 상황의 반증이다.

허츠는 이러한 위기의 대처법으로 국가는 개인 돌봄이나 공동구역 확보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제시하고, 기업은 과거 이익에 따른 차가운 계산법을 외로움의 세기에 맞춘 온정과 돌봄을 채운 계산법으로 바뀌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원래 주일 예배와 모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하게 했다.

감사하게도 허츠의 분석과 대안은 고립의 시대를 함께 겪고 있는 교회공동체에 많은 아이디어와 자신감을 준다. 그의 분석은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땀흘려 봉사하는 습관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설득할 수 있게 한다.

이미 우리는 이 고립의 시

시적 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특별히 오프라인 만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구성원들이 여전히 많은 현 상황에서,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자신에게 독이 되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함께 나와서 만나는 것의 유익을 상기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모임을 두려워하는 소그룹 구성원을 위해 바로 기존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라고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가 매력을 느낄만한 가벼운 운동, 봉사 등의 모임을 따로 가지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되새겨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거리정소, 불우 이웃을 위한 도시락 싸기 등 유의미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도 좋다. 이러한 한 번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물꼬가 돼 교회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소그룹 모임에 매력 느낄 운동/봉사 등 제시
유익미한 목적 제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남 유도

그리고 지나친 개인화의 반작용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콘서트, 요가, 명상과 같은 단체 활동이 오로지 "모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한

고 역설하면서도 국가나 기업에만 책임을 맡기지 않는다.

교회 역시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개인이 예배드리는데 형태가 분명히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일부 교회에는 더

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남과 위로를 교회공동체에서 경험했다. 교회가 대안이라는 자신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모임의 유익을 상기

옛사람 벗어버리고...

(2면에서 계속)

4. 실패를 극복하기

목표가 난관에 부딪혔다면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비효율적인 건 무엇일까? 좀 더 현실적으로 살피고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해보자. 결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해보는

건 어떻게?

건강한 식단으로 바꿀 목적이려면 흰 빵과 파스타면 대신 좀 더 건강한 통밀을 섭취한다. 포화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케이크나 감자칩 대신 채소 스틱 과자나 스무디를 먹는 것이다.

5. 장기적인 목표

새해 결심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모호하고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여러 장기적인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호주 스윈번대학의 앤 박사는 말한

다.

만약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의지력에 기대는 이들은 대부분 실패하죠." 결국 관심 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첫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에도 새해를 맞으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결심하는 새해의 결심 전통이 있다. 히스토리채널에 따르면 1740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는 새해 전날 혹은 새해 첫날에 언약갱신예배(Covenant Renewal Service)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송구영신예배(Watch Night Services)로 알려져 있으며 새해 전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교회의 영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만족한 세상을 살려면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한국은 대선(大選), 대통령선거의 해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선 관련 뉴스를 보면 수십년 전 선거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상대 후보에 대한 교묘하고 치밀한 흑색선전은 더 가열되어 치졸한 싸움판이 된 것 같은 작금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 빼앗기는 것 같은 국민들은 어디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서민(庶民, 국민)들은 '열변을 토하는 후보들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품지 못하고 있다. 임기를 마친 후 행복한 생활로 이어진 역사를 갖지 못한 한국에서 그들은 왜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는지 답을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타깝다.

차라리 프랑스 미학자 에티엔 수리외가 말한 '황홀함'이라는 뜻의 '라비스망'처럼 어떤 것에 마음을 완전히 몰입해 삶을 고양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거기로 달려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 또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최고 권력의 자리'로 인식될 뿐인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후보들과 정치인들에게서는 도무지 '나라와 민족, 미래와 희망'과 같은 위민(爲民)이나 정치(政治)의 원래 의미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덴마크에서는 일년중 마흔 한 번째 금요일(대개 10월경)을 모션스데이(Motions Day)라고 이름붙이고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운동을 하는 행사를 지켜오고 있다. 1982년에 시작한 이 행사는 40년이 되는 올해도 준비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전국 학교의 96%, 약 65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신체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학생들이 운동에 흥미를 갖게 하고 나아가 운동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체험하는 교육효과를 얻고 있는 이 행사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사라진 전교생 운동회나 마을 체육대회, 교회들의 전교인 체육대회가 아쉬워진다.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를 외치며 함께 손잡고 외치며 엮고 달리면서 함께 부둥켜안던 운동회가 지속되었다면 오늘날 한 가정치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어깨동무이다. 학교 다녀와 책가방을 던져놓고 동네골목에 모여 놀다가 해질녘 밥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한 줄로 쭈욱 서서 어깨를 이어 잡고 '어깨동무 내 동무 미나리 밭에 앉았다'를 부르며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어린 시절의 그 골목길 그 놀이.

이렇게 날마다 '모션스데이'였던 그 때가 그리운 이유는 '함께'가 없어진 이 시대가 주는 슬픔 때문이다. 더구나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를 빼앗긴 이 시대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아가 교회에서마저도 쫓겨나와 각자의 개인 공간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다. 수많은 기업들의 원격근무(재택근무)제도라든가 식당과 공공장소의 출입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함께'를 빼앗겨버린 것이다.

대통령선거 후 대통령 자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자리가 되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한반도 땅에 '함께' 걸어가야 할 어깨동무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땅따먹기 놀이는 '가져려는 놀이'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어깨동무는 '함께 즐기는 놀이'였다. 기억을 되살려보기를 바란다.

무엇을 가짐으로써, 더 가짐으로써 만족해하는 인간본성이 삶의 진정한 만족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칼빈의 교훈을 덧붙여본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이다."

혼자 차지해야 하는 욕망의 역사와 홀로의 자리로 내몰린 팬더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다. 치졸한 치열함 속에 다가오는 한국 대선 기간 중일지라도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하나 됨을 통해 진정한 삶의 만족을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djlee7777@gmail.com

Advertisement f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cludes the seminary logo, the name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 large letters, a list of 5 key features (84-year history, accredited, 100% online, etc.), a list of degree programs (M.A., M.Div., etc.), and 2021 fall semester online class schedules. Contact information for Dr. William J. Katip is provided at the bott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맛

로마에는 수많은 이태리 식당들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식당들 중에 단골로 가는 식당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요즈음에는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지만 식당은 뭐니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한다. 그 맛은 물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내가 맛있다고 느끼게 되면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도 맛있다고 공감한다. 가까운 곳에, 처음에는 생선을 파는 가게로 출발했다

가, 주인이 생각을 바꾸었는지 한편에서 생선 스페케티를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팔리지 않는 생선을 튀겨서 전식(Anti Pasta)으로 사용하는 일은 안성맞춤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가게는 장소도 별로였고 공간도 협소했다. 그런데 별 기대 없이 찾아온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고는 너도나도 찾아와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이 되었다. 본래 이태리 사람들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맛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한번 갔었는데 분위기는 촌스러운데 맛은 탁월했다. 얼마 전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한 아내가 거기서 배달하여 먹자고 하여 오징어 튀김과 Risotto Scampi(바다가재와 쌀로 죽 같이 만든 요리)를 시켰는데 얼마나 맛있어 하는지 만족했다.

아무튼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다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 34:8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맛을 보아 알라는 말씀은 경험해보라, 체험하라는 가르침이다.

피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파위가 약하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무너질 수 있게 된다. 험한 인생길에서 수 없이 밀려오는 거친 파도 앞에서 베틀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식당에 갔다가 맛있음을 경험할 때, 그 식당을 잊지 못하는 것

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 맛은 평생을 유지하게 되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다.

어떤 타 종교인이 성경에 대하여 가볍게 평가하는 글을 읽은 일이 있다.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는 장엄하고 너무 깊어서 평생 씌름해도 깨닫기 어려운 데 성경은 부피도 작고 내용도 가벼워서 얼마간 시간만 집중하면 금방 마스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글은 저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쩌면 죽은 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서는 내용이 쉽고 가벼운 것 같은 글인데도 그 저자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겸손하게 다가가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다.

선배의 간증이다. 그는 오래 전에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매일 지

독한 고문을 당하는 중에 옆구리를 다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로 앓을 수도 없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쉬어야만 했다. 발은 동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추위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에 성경을 펴두고 창세기로부터 '불'에 대한 단어를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에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이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오"(눅12:49). 전에 수 없이 보았지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다고 한다. 순간 온몸이 불로 뜨겁게 되었고, 벽을 만져보니 벽에도 스티미가 들어오는 지 따뜻했고, 바닥을 만져보니 바닥도 스티미가 들어오는 것처럼 따뜻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잠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큰소리로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 교도관이 찾아와 조용히 하라고 하자, 당신도 이리 와서 같이 찬송하자고 권하니 저 친구 돌았다면서 가벼워 버렸는데도 그 밤을 찬송과 기도도 하얗게 새웠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 옆구리 아픈 것이나 동상으로 만신창이가 된 발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다.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견디어 내고 기어올라 일어난다. 고로 누구나 성경의 맛을 보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나 이성 그 벽을 뛰어 넘어서 말이다. 그 때부터 살아있는 믿음은 시동이 걸리게 된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송호민 목사

(뉴저지 한성개혁신학교교회)



예수님은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같은 내용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는가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복에서 기자들보다 상세하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색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병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부에 직접 손을 얹으시고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적에'라는 말은 식사를 마치고 취침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병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감정과 의지 또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주무셔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그(세리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음식을 드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밤늦도록 병인들을 고쳐주

신 예수님은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날 늦게까지 주무신다 해도, 아니 하루를 쉬신다 해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된 일 뒤에 쉬 없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감람산은 '겻세마네'와 같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곳에

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눅 22:32).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눅22:42-44).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없었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지쳐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 힘드십니까? 예수님만큼 지쳐있으십니까? 예수님만큼 고통당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 번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

게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7-18)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나를 불드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친히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35절



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늦은 밤까지 병인들을 고쳐 주신 예수님은 잠시 눈을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피곤한 육신을 일으키셨습니다. 더 주무실 수 있지 만, 더 주무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매일 동일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막 14:32).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신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빌 2:6).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빌2:7)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빌2:8)하기 위하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

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비록 죄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뚫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다. 치료해주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좇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위하여 친히 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불드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통과 환란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나를 맡기십시오. 나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모든 범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십시오. 기도하면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본을 따라 습관을 좇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도를 최선으로 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태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란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낙담하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homini75@hanmail.ne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주정부, '낙태 관광상품' 에 세금으로 자금지원 추진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아, 그리고 미래의 차 세대를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에 법적인 "낙태허용"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낙태 합법화 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973년 22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텍사스에 거주하던 "Jane Roe"로 불려지던 Norma McCorvey(실제이름)라는 여성이 미혼으로 세 번 째 아기를 가지게 되자 그 태아를 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성의 요청대로 "제한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었던 달라스 카운티 지방검사였던 Henry Wade 검사를 Roe는 또 다시 소송하여 미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유명한 Roe vs Wade 라는 범명이 탄생되며 그 이후 미국 안에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와 없애려는 세력들의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결정으로 인해 미국안의 "태아 생명의 존엄성, 태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미대법원의 타협은 타협에서 최악의 길로 들어선 수 십년째 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낙태는 안됐었나? 엄마와 여성의 생명보호법은 없었었나?

있었습니다. 미국은 70년대에도 임신한 "여성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성/엄마들에 대한 의학적 선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exception(예외)"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확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학과 과학이 배속의 생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울트라사운드(Ultrasound) 같은 것이 없었 속의 생명이 아기인지 검증할 수 있는 의료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Roe vs Wade가 Roe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논쟁은 어마하게 커졌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은 계속 "여성인권"을 외치는 Roe 여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당시의 법적 노트를 보면 판사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여성 배속의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될 때가 있다면 그때 다시 Roe vs Wade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40년이 훌쩍 흐른 지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Roe vs. Wade 케이스의 위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40년 넘게 태아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뛰어온 Pro-Life 단체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저희 Tvnex 단체 역시 Pro-Life 단체로서 미국의 Pro-Life(생명의 존엄성 단체) 단체들과 지난 10년간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캘리포니아-낙태법안을 더 강화하기위해 앞장서다!

속상한 소식, 중요한 기도제목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검토에서 조기 낙태 위험임을 판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주정부가 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낙태를 용이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려는 캘리포니아는 현재 45개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타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캘리포니아에서 낙태 시술을 원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The California Future of Abortion Council이란 이름으로 지난 12월 초에 발표한 이 단체는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낙태 시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낙태시술을 보호,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권고안"까지도 발간했습니다.

이런 권고안의 탄생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이끌고 있는 샌디에고의 민주당 Toni Atkins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의 낙태를 원하는 자들의 성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낙태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것과 낙태에

대한 보호를 확장해나갈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찾고 있다"고 주류 미디어를 통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난 4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뽑아놓은 Pro-Life 판사들이 많아진 연방대법원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케이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oe v. Wade 케이스 결정(낙태 합법화)를 뒤집게 된다면 주정부들은 임신 첫 6개월 동안 낙태허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즉, 태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낙태지지' 지도자들이 '수익성이 있는 낙태'를 하기로 결심하여 로비를 통해 여성들에게 "여성적 성공"을 위해서는 낙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린 여성들에게 잘못된 "성공"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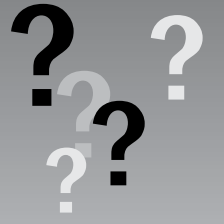
미국은 지난 50년 넘도록 가장 연약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선택을 말하지 못하는 태아들을 "여성의 선택 Pro-Choice, Woman's Choice"라는 명목아래 이들과 같이 사라져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안에 뿌려진 태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십대들에게도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에 미국과 우리마음을 회개 통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힐링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 139:13-14).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을 사도행전 9장 10절과 19절에서 제자(Disciple)라는 말로 나오다가 제자라는 말이 11장에서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 행11:26).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말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오며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요?

-Samuel Lee 집사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하다가 행11장에서 안디옥의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또 부릅니다. 제자나 그리스도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보다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11:26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3번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

됩니다. 그 후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바울사도를 통해 1년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제 배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즉 그리스도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student)입니다.

둘째, 행26:28에 아그립바 왕이 바울의 구원간증을 듣고 당황하여 비웃는 투로 "내가 적은 말로(영어성경은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Christiani(크리스티아니)"로 그리스도와 iani(따르는 자, 추종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릇을 추종하는 자를 "해릇당"이라 불렀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아 '나사렛이단' 혹은 '나사렛당'(Nazaraeans)이라고 불렀습니다(행24:5). 그러나 오늘 아그립바왕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제자라는 말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따르는 자(Follower)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핍박과 고난당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불시결과 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자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가는 밝은 길
영원한 기독교

저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어려운 세상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북돋아 주려고 이 책을 썼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별을 확실히 하고, 안으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교파와 교단을 하나로 묶어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고, 또한 각종 이단과 사이비, 유사, 모방, 아류 기독교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효과적으로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력(學歷)
서울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물리과) 졸업(B.S.)
C.H. Haggard School of Theology(M. Div.)

경력(經歷)
서울대 사범대 신문 주간(4.19 당시)
ROTC 1기(포병 1차)
교사(教師) / 미국 이민
LA 통합 교육국 근무/은퇴 목사(牧師)
현 영영홈박사 성경 연구원 원장

저서(著書)
《오늘의 기독교》(쿰란출판사, 2004)
《핵융합의 실상과 유영훈 박사》(큰샘출판사, 2016)
《하늘 가는 밝은 길-영원한 기독교》(쿰란출판사, 2021)
《ROTC 1기》(프라이스, 2021)

역서(譯書)
《웨슬레 신학의 사변형(The Wesleyan Quadrilateral)》(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0)

책구입 및 저자 연락처 yeongsjyoo@gmail.com
Rev. Yeong Sae Jyoo
P.O.Box 6267
Buena Park CA 90622

책값: 미국내 우송료포함 \$25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뉴올리언스는 말도 쫓추게 한다

12월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만큼 남편은 7년의 장례예배를 인도하며 몸도 마음도 힘들어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다시 간 학교는 스트레스가 컸다. 나 또한 파트타임 일을 하며 가족들을 살피고 새로운 일상들 속에 혹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어쩌나? 하는 긴장과 걱정을 끊을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성탄예배 후 휴가를 가기로 결정하고 장소를 함께 의논하며 뉴올리언스로 정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고

따뜻한 곳, 운전으로 갈 수 있는 곳,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있는 곳, 그렇게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예배를 함께 드린 후 우리는 출발했다.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온화한 날씨는 잔뜩 긴장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뉴올리언스에 도착하여 주 관광지인 프렌치쿼터에 가니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프랑스 콜로니얼에 지어진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강렬한 색채의 건물들은 한결을 땀 때마다 우리의 눈과 발을 붙잡았고 귀에 들리는 소울가득하고 리드미컬

한 재즈음악은 심장을 뛰게 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시시피 강바람에 실려 오는 커피 향과 맛있는 냄새들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여유와 미소가 가득했다. 오미크론변이의 확산으로 많은 걱정을 가지고 갔지만 기대이상으로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과 많은 이야기로 채워주는 뉴올리언스는 너무 멋진 곳이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환호소리가 들려 우리도 그곳으로 가보니 경찰이 타고 순찰하는 말이 거리 재즈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부러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주고자 훈련된 말에 탄 경찰이 고삐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춤을 추는 말의 모습은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 흥겨운 모습에 사람들도 말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고 우리도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음악이 끝나자 말은 타박타박 경쾌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고 처음 보는 신기하고 멋진 모습은 너무 강렬했다.

그렇게 달콤한 휴가를 마친 우리가족은 함께 또 각자 많은 이야기를 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작년 여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벵주얼로 함께하는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모임은 자녀 한명 한명의 기도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때로는 기도 후에 나이가 제일 연장자인 나에게 신앙이나 육아 상담을 할 때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리스천으로 자라기 위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젊은 엄마들의 고민을 들으면 아직 교회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다.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하며 나는 뉴올리언스에서 만난 댄싱홀스(Dancing Horses) Ace가 떠올랐다. 어느 때와 같이 순찰 중 경찰이 가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아 기다렸더니 음악에 맞춰 스텝을 옮기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말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동물이고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다. 하지만 뉴올리언스의 기

마들은 All New Orleans horses are trained in sounds, marching bands and crowd noises before hitting the streets. This horse is not scared. 뉴올리언스 경찰관이 울린 댄스동영상 글을 읽었고 여기에서 답을 얻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주일성수, 가정예배, 성경 읽고 암송, 규칙적인 기도생활 모두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인 부모님들의 가정과 성숙한 일상생활의 모습, 또 교회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리지만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의 부모님. 주일예배 후 어린 자녀들과 자동차에 타자마자 오구 집사님 설교에 대해, 예배에 대한 감격보다 예배에 만난 교인들에 대한 가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소그룹 모임의 경우에도 호스트일 때는 청소와 음식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른 집에서 모임을 마친 후에는 그날

식이나 집이 크다 작다 등등 자녀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라는 곳에 대해 매주 드라마와 가십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 직접 들은 말과 표현이다.

뉴올리언스의 음악과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이 Ace를 어느 날 함께 음악을 즐기고 춤추는 멋진 말이 되게 한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서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복한 크리스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스스로 더 멋진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 믿는다. All Faith family kids are trained in love, speaking good words and joyful noises before hitting the world. These kids are not scared.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로나 속 미국교회, 성도 물갈이 가속

미국교회가 코로나19로 기존 성도들의 이탈과 새로운 성도의 유입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익명이 보장된 대형교회보다 소형교회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월 17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인 지난 2년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새로운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텍사스주 휴스턴 노스웨스트교회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고 시설을 복구한 뒤 예배를 재개했지만 6주 뒤 코로나로 다시 교회 문을 닫았다. 이 교회는 최근 대면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상황을 경험했다.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수백 명 성도까지 합하면 매 주일 1600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 평균 1700명의 성도가 예배드린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회 스티브 베즈너 목사는 "교회 폐쇄와 예배 재개과정에서 양떼가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설물처럼 들어오는 걸 봤다"며 "무엇보다 최근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3분의 1은 새로운 얼굴이다. 성령의 보호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CT는 팬데믹이 성도들의 교회 이탈과 복귀를 가속화했다고 봤다. 온라인예배로 교회마다 예배 참석자들이 새신자인지 아닌지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엘리사 후버씨는 "팬데믹 기간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게 쉬워졌고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나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T는 새롭게 오는 성도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리 잡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성도의 출석률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소형교회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풀러신학교 교회개혁이니셔티브 책임자인 렌탕씨는 "의명성은 미국 교회의 큰 부분 중 하나인데 작은 교회는 의명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 기간 소규모 교회가 성도를 유지하기 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면서 "소그룹 모임에 집중한 교회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성도 이탈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정·공동체 회복하려면 만나라, 사귀라”

“다시 만나고, 새로 사귀라.” 미국복음연합(TGC)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잃어버린 우정



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TGC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미국인은 가족

외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감소했다”며 “고독이라는 또 다른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GC는 먼저 “우정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지름길이 없다”며 “서로 만나고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됐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정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만남이 없다면 개인은 고통받고 교회 또한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단체는 “다른 이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관계가 깊어진다”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며”라는 로마서(12:9-10) 구절을 인용했다.

이어 “타인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나아가 “기존의 관계망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라”고 조언했다. TGC는 “우리가 비슷한 믿음과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폐쇄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던 세리와 창녀를 만났고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이다.

TGC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회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골 3:12-14)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소개했다. TGC는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며 “교회나 여러 모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한다”고 했다. TGC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관계 맺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美 대형교회 온라인으로 전환

미국의 10대 교회로 꼽히는 한 대형교회의 네트워크 교회가 예배당 없는 온라인교회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예배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교회의 공격적인 시도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10일 ‘포터스하우스멤버(덴버교회), 가상예배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덴버교회는 대면으로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이전한 최초의 가장 유명한 대형교회”라고 보도했다.

CT에 따르면 1989년 콜로라도주 아라바호 카운티에 설립된 덴버교회는 32에이커의 토지와 13만7000제곱피트의 교회 건물을 1220만 달러에 매각하고 온라인교회로 전환했다. 이 교회는 미국의 대표적 흑인 목회자인 TD 제이

크스 목사가 텍사스주 달러스에 세운 포터스하우스의 네트워크 교회 중 하나다. 포터스하우스교회는 덴버와 달러스 포터스 LA 등에 네트워크 교회를 두고 있다. 덴버교회는 딸 사라 제이크스 로버츠 사모와 사위인 투레 로버츠 목사가 이끌고 있다. 이들이 교회 매각을 고민한 이유는 성도 수와 재정 감소다.

로버츠 목사는 지역 매체인 더덴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교회를 향해 성도와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며 “또 모일 수 없는 상황과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덴버교회 온라인예배엔 평균 1만명이 동시 접속했고 유튜브 주간 조회 수는 30만명을 기록했다.

로버츠 목사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성공적 대안으로 입증된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결정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덴버교회는 물리적 공간은 포기한 대신, 매년 수천 명의 덴버 지역 가정에 식량을 공급해온 푸드뱅크 사역과 지역봉사 등은 지속할 계획이다. 최근엔 자선단체도 출범시켰다.

전문가들은 덴버교회의 도전에 다양한 반응을 내놴다. 또 다른 감영교회 예배를 방해해도 덴버교회 사례를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듀크신학대 데이비드 고슬리 교수는 “복음주의 교회는 모이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함께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덴버교회는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성도가 많아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대다수 교회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침례회 종교의자유와올리위원회 제이슨 테커 연구책임자는 “디지털 교회가 훌륭한 봉사 활동이자 선교학적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함께 모이라는 성경의 명령을 놓칠 수는 없다. 교회는 예배도, 설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순절 교회부흥 이끈 조지 우드 목사 별세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장인 조지 우드(George O. Wood) 목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0세.



14일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에 따르면 우드 목사는 지난해 8월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투병해왔다.

우드 목사는 1941년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9년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하나님의성회 교단 신학교인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에반젤 대학교를 졸업한데 이어 석·박사를 받았다. 1967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 이어 1993년부터 총회장 취임 전까지는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무로 섬겼다.

그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맡은 뒤 교단의 비약적인 부흥을 이끌었다. 취임 직전 286만명이던 신자는 10년 만에 324만명으로 늘었다. 미국내 하나님의성회 교회는 같은 기간 1만2362곳에서 1만3023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1년에는 ‘하루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자’는 목표를 세우고 그해에

만 368개의 교단 소속 교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MM33(His Mandate, our Mission)’ 비전을 내걸었다. 예수 승천 2000년이 되는 2033년까지 전 세계 곳곳에 100만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의 재임 당시 젊은 층과 여성, 소수 민족 사역자들의 비율이 한층 늘면서 교세와 위상을 끌어올렸다. 우드 목사는 또 하나님의성회 헌법에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복음 전도와 예배, 제자도 등에 이어 ‘연민·동정심’을 뜻하는 ‘컴패션(Compassion)’을 추가하기도 했다.

우드 목사는 2008년부터 세계하나님의성회(WAGF) 총재로도 활동해왔다. WAG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단 연합기구로 164개국 7000만 회원을 두고 있다.

美 연방대법 “직장 백신의무화는 과도조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무효가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찬반 의견이 6대 3으로 갈렸다.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퍼진다. 이 같은 위험은 범죄, 공해, 여타 전염병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국 판단을 옹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징계 또는 무급 휴가 등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금융 기업인 씨티그룹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무급 휴직 처분하고 고용계약을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구글 경영진 역시 정부가 접종 의무화 마감 기한으로 내건 이달 18일까지 직원에게 백신을 맞거나, 의학적·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급·무급 휴가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며 끝내 해고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8. 이만춘(1873-?)

이만춘(李萬春)은 1873년경에 강원도 흥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30세가 되던 1903년 11월 5일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홍콩 마루에 승선하여 그해 11월 1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승객 서류에 따르면 훌라비로 적혀 있어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이국땅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읽고 쓸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아마도 국어를 쓰고 읽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직업은 농부였고 배삯을 스스로 마련하였다. 수중에 50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러진 뼈가 없이 건 강했다. 당시 이민국에서는 수감 여부, 일부다처론 여부, 무정부주의자 여부 등을 물었는데 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이만춘은 오아후 섬 카파아(Kapaa) 농장에 정착하였다. 그의 영어 이름은 Ye Man Choon이나 Yi Man Choon이나 Yee Man Choon으로 쓰였다.

호놀룰루 한인전도회 창립 교인

안중수와 우병길이 하와이 미국북감리교 감독이었던 조지 L 피어슨 목사를 찾아가 오아후섬 호놀룰루에서 한인전도회를 조직한 때가 1903년 11월이었다. 본 전도회의 창립교인이 20명이었는데 이만춘이 20명 창립교인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학생교인이었다. 등록한 지 이듬해가 되던 1904년 5월 13일에 그는 본 교회에서 조지 L 피어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후 이만춘은 오아후섬 에와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로 이명하였다. 1905년에 민찬호 목사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당시 본 교회는 33명의 재적교인에 30여 명이 매주 출석하였다. 그 후 본 교회는 호놀룰루한인감리교회가 되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다.

오아후 섬 에와한인감리교회

이만춘은 1905에 가와이섬 가파농장에서 오아후섬 에와농장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그는 에와한인감리교회로 이명했다. 그해 4월에 예배당이 건축되면서 본 예배당은 호놀룰루교회에 이어 두 번째 예배당이 된다.

안정수, 윤병규, 흥승하 등이 참여하여 1903년 8월에 호놀룰루에서 설립한 신민회가 구국을 위한 동족단결과 민지계발 그리고 국정쇄신을 목적으로 했는데 대한제국을 정복하려는 반역집단이라는 오해가 일어나 이듬해 4월에 해체하였다. 신민회 해체 이듬해인 1905년 5월 3일에 정원명, 김성권, 윤병규, 김규섭, 강영소가 친목회를 조직할 때 이만춘도 가담했

다. 회장은 정원명이었고, 서기는 백일규였다. 본 친목회는 항일운동과 일화배척 그리고 동족상애를 목적으로 하였다.

두 달 후인 그해 7월에 예비친목회는 미주공립협회와 연합으로 윤병규를 대표로 하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공부하던 이승만을 통역으로 임명하여 미국 뉴햄프셔에서 열린 '러시아, 일본 강화회의'에 한 국문제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그해 8월 10일에 윤병규와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를 방문하여 '러시아, 일본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5년 12월에 개최한 제1회 미국북감리교 하와이연회는 김영식을 본 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1904년 본 교회는 56명의 교인이 재적하였는데, 김영식 목사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던 1905년 12월에는 재적교인은 135명이었지만 매주 200여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김 목사는 본 교회를 1906년까지 섬겼다.

에와농장의 어떤 동포들이 "주색잡기의 장소로 가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한탄하는 글을 공립신보에 남긴 다음해 본 친목회는 1906년 5월 1일부터 속쇄판으로 '친목회보'를 발행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결의가 역력했다. 그해에 이만춘은 정원명과 함께 동포들을 따뜻하

게 권면하며 한인사회의 진정한 정신적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1906년 9월 19일 자 공립신보에 따르면,

"하와이 에와 농장에 유하는 김익용 씨가 본사에 편지하기를 본인이 근분 피류 없더니 금년 정월말 에와농장으로 와서 유한 지 칠팔 삭 동안에 이만춘, 정원명 양 씨의 진심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회개한 것이 많삼고 또한 본인만 아니라 수백 명 동포가 진보됨이 날로 새롭기에 기쁨 마음을 측량할 수 없어 귀사에 앙고하오니 정, 이 양씨의 열성을 표창하시기 바란다하더라."

1907년에 이만춘이 가담한 에와 친목회는 광무황제 탄신기념행사를 마련하였다. 개재한 사진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은 에와교회 교인일 것이고, 이중에 이만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해 12월에 에와교회에 김영식 목사의 후임으로 김유순 목사가 부임하여 1908년까지 섬겼으며 1909년에 오승순 목사가 부임하였다.

국구해리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이만춘은 1909년에 하와이 섬 국구해리(Kukuihaele)의 농장에 거주했다. 당시



에와 한인감리교회(1905)

는 국구해리에서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호놀가이지(Honokaa)교회와 호놀가이지에서 해변을 따라 남동쪽으로 37.7km 더 가면 나오는 파팔로아(Papeaia)교회까지 섬겼다. 그리고 1911년에 김영식 목사가 본 교회에 부임하였고, 호놀가이지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1910년과 1911년의 하와이 전화번호부에 따르면 이만춘이 하와이 섬 국구해리에 있던 국구해리 한인감리교회 목사였다. 아마도 그가 최진태 목사와 김영식 목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 본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등 목회를 한 지방 전도사로 보인다.

으며 이 한인학교는 에와한인감리교회를 담임한 이선일이 교장이었다. 1911년 에도 이만춘이 오아후 목골니아 한인학교 교장으로 활동하였다.

하갈나우 상동 한인기독교회 전도사

이만춘은 하와이 섬 하갈나우(Hakalau)의 농장으로 이주했다. 하갈나우는 국구해리에서 남동쪽으로 56.5km 떨어진 해안 도시이다. 이만춘 전도사는 1934년 이전에 다년간 하와이 섬 하갈나우(Hakalau) 상동 한인기독교회를 섬겼다.

이만춘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동포사회와 한인 아동교육에도 열심이었다. 1934년 6월 11일에 본 교회를 방문한 박동완 목사의 주례로 밤에 예배를 드리고 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해 10월에 한인기독교회에 기고한 박동완 목사의 순회방문기에서 본 교회를 엿볼 수 있다.

"5, 6년 동안 중앙부에서 각 지방교회를 순회 시찰하지 못하다가 중앙이사국장 대리의 자격으로 박동완이 1934년에 순회 전도여행을 떠났다. 때는 6월 8일 오후 4시... 11일, 힐로 한인기독교회장 봉 목사와 동반하여 하갈나우 상동에 갔다. 자동차에서 내려서 3마일가량이나 걸어가는데 전에 한번 갔었으나 길을 알지 못하여 새로 난 넓은 길만 쫓아서 산 북다이까지 가서 물은즉 잘못 지나 올라갔다. 도로 3마일 가량이나 내려와서 좁은 길을 바로 찾았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동중에 들어가니 여러 분들이 의외같이 반기워하며 맞이준다. 밤에 예배하고 한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곳은 이만춘이 다년 교회와 사회 또는 교육에 동중 동포들의 뜻을 아울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쉬지 않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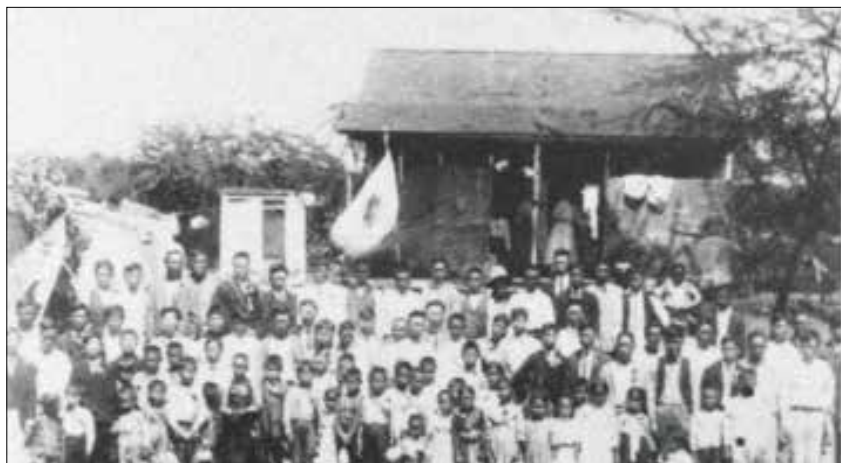
그런데 동아일보 1933년 12월 19일자 에 이만춘이 나온다. 경의선 백마역에 있는 예수교 정심교회에서는 설립자 이만춘과 김학연 양 씨의 기념비 제막식을 그달 14일에 동 교회당 내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백마 정심교회를 찾을 수 있으면 동일 인물인지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듯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쉽게 찾을 수가 없다.

damien.sohn@gmail.com

30세에 하와이로 이주 호놀룰루한인전도회 창립 20인중 일인 교회 전도사사역 외 한인 동포사회와 한인 아동교육에도 열심

하와이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에 조선총독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고, 체포되어 재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안중근 의사의

하와이 국구해리 한인감리교회는 1915년에 박새한 목사가 부임하여 호놀가이지교회까지 섬겼는데, 1916년에는 그가 섬긴 지역이 호놀가이지 지역교회로 되었다가 1917년 이후에는 국구해리



에와교회 광무황제 탄신기념행사(1907년)

재판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때 이만춘은 1달러를 기부했다. 총 1,595명의 한국인이 2,921달러를 후원했는데 하와이 한인 이민연구가 이덕희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01년의 돈 가치로 환산하면 60,000달러에 해당했다.

1910년에 하와이섬 국구해리 한인감리교회가 조직되었고 그해 최진태 목사가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그

교회가 자취를 감추었다.

오아후 목골니아 한인학교

그런데 1910년 3월에 모인 하와이 선교부 회의록에는 이만춘이 오아후섬의 목골니아에 있던 한인학교 교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당시 하와이 군도에는 11개의 한인학교가 있었고, 오아후섬에는 목골니아 외에도 에와에 한인학교가 있었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74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중앙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toboss@yahoo.com 62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845-1512, Fax: (215) 8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타해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목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2, www.bostonkorea.org 4313 Main St, Hixkinton, MA 01748
안다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iejc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07) 344-6446, Fax: (8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842-0288, Fax: (215) 842-8037 706 Wilmer Rd, Ho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전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in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1) - 사자를 위한 땅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2: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다. 그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 백 년을 사는 동안(창12:4; 25:7)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셨다. “네 자손에게”(창12:7), 또 다른 곳에서는 “너와 네 후손에게”(창17:8)라 하심으로 땅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시작될 것을 가늠케 하셨다. 물론 그 본격적인 성취는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므로 말미암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에 땅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을까?

이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창



막벨라굴

세기 23장에 있다. 사자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의 헛 족속에 나가 자신을 그들 중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라 소개하면서(창23:4) 그들에게서 사자를 매장할 소유지를 살 수 있기를 청하였다.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gerwetōšāb) - 창세기 23장 문맥에서 대략 오늘날 ‘거주 외국인’ 정도의 뜻을 갖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레위기 25:23을 바탕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그 땅에서 토지를 사고 팔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참고: 개역개정판 레위기에서 이를,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 번역했다).

즉,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토지를 살 권리가 없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그가 사자를 장사할 매장을 사겠다고 청하고 나선 것이다.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가 장사하게 하시오”(창23:4). 그런데 헛 족속의 반응이 우리를 사탄 놀라게 한다: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창23:6).

사자를 기꺼이 자기들의 묘실에 묻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본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12:3)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사자의 매장소유지를 은 사백 세월에 사 이뤄짐”

을 이미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단지 후대에 전할 약속을 남기기만 한 자가 아니었다.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였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란 칭송을 받게 이르렀던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한 사람,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훌륭한 선교사였던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청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하시오” - 여기서 아브라함이 청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자를 그 땅에 묻기를 위한 것이며 둘째, 그 매장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묘실을 기꺼이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헛 족속의 호의는 비록 쉽게 사자를 묻을 방안을 마련해주는 하지만 매장을 소유할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호의를 거절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창23:8-9). 즉, 소유지를 갖고자 함이 그의 요청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가나안으로 이주해온지 62년, 사자가 65세 때 가나안에 함께와 127세에 숨을 거두기까지 그들은 소유한 땅이 없이 지금껏 장막생활을 해왔다. 그 세월 동안 딱 두 번 아브라함이 정착 생활을 시도했는데 첫 번은 애굽에서였고(창12:10-20) 두 번

라고(창23:9).

헛 사람 에브론이 다른 제안을 한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창23:11). 그러면 값없이 소유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창23:13). 사자를 위해 값 없는 터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 헛 사람 에브론은 은 사백 세겔을 값으로 정하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헛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줌으로(창23:16)

그들 가운데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함께 매장지 매입을 성사시켰다. 그리고는 “그 아내 사라를” 그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창23:19).

아브라함 때에 땅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그 약속은 사자를 애도하는 아브라함이 그를 매장할 소유지를 은 사백 세겔에 사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창23:20).

그들 가운데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함께 매장지 매입을 성사시켰다. 그리고는 “그 아내 사라를” 그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창23:19).

아브라함 때에 땅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그 약속은 사자를 애도하는 아브라함이 그를 매장할 소유지를 은 사백 세겔에 사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창23:20).

spark4@gordonconwell.edu

[정정] 본지 1855호 8면 제목 “기독교명저”는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망(Outlook)”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필자 두 분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 품 칼 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새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선택

인생이 소중한 것은 우리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마지막 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잘살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29:11).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과 희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의 인생을 눈여겨보곤 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유대에서 귀족의 자녀로 행복하게 자라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7살이나 20살 안팎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린 다니엘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단1:8) 하나님께 순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이기는 분별력의 성품을 기초로 그의 안에 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로 존귀하게 살다가 천사로부터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 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단12:13).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꼭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성품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뇨”(시31:19)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고행(苦海)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힘들고 낙심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품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전4:4)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오늘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끝을 안도함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는 ‘감사’로 지나간 한 해를 조용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 없는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한 해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미래와 희망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goodtreusa@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후 05:45</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4>뉴욕양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4>뉴욕주산양교회</h4>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성경강좌: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성열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2부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긴급인명발령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h4>사랑의등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진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p>	<h4>어린양개혁교회</h4> <p>담임목사: 유송혜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h4>은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문위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전 5:45</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오전 9:00 7시45분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전 5:30</p>	<h4>하와이 행복양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h4>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필리핀 신학대학 교수</p>



목회서신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법(1)-조심 또 조심하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과 음란함의 상징으로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 음란한 시대였다. 로마제국은 지배국의 권력을 손에 쥐고 피 지배국 사람들을 마음껏 학대했고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았으며 넘치는 풍요로움을 주

체할 길이 없어서 온갖 육체적 쾌락을 즐겼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당시 시대상을 한마디로 "악하다"고 표현했다(엡5:16). 바울이 말한 "악하다"란 말은 죄악의 악함도 표현하지만 각종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것도 포함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들과 로마제국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악이 가득하고 무서운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해주셨다. 그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첫째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엡5:15)고 말씀했다. 현재 우리는 상당히 복잡한 일들을 묵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온 세계는 코비드로 인하여 두렵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세계의 초강대국들이 누가 더 강한지 힘겨루기 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 게다가 현 시대는 과학과 지식의 발달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무사히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 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국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 시대에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는 "조심하라"는 유의 말일 것이다. '코비드에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라', '혐오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라', '거짓뉴스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등의 말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조심이란 말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사람이 얼어붙은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운전자가 경찰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 피의자가 엄숙한 법정에서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초조한 모습 등이 떠오른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한 개인의 부주의한 작은 실수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실로 매우 위태하고 험악한 살얼음 위에 던져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때에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경건하게(약1:27) 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자신을 돌아보고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갈6:1). 부모는 매일 자녀들에게 "조심하라"라며, 자동차 조심하고, 강도 조심하고, 길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위험하고 악이 범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신신 당부하신다, "조심하라!" dik0184@yahoo.com



남가주한인목사회 및 여성목사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믿음으로 충성하겠다" 진건호 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및 여성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한인목사회 및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단 위임 및 취임식이 16일 오후 4시 30분 나섬제일교회(담임 김성지 목사)에서 열렸다. 류창렬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사화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기

및 여성목사회기 입장, 소프라노 에스더진(명곡오페라 아카데미 원장) 축가,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와 이현옥 목사의 위임인사, 노정해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 김해경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

회 이사장)가 취임사를 했다. 남가주목사회 회장 진건호 목사는 "2022년도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 이일을 위해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이현옥 목사는 "여성목사회 산하 회원들이 연합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정해 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은 "남가주목사회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회기 이양 시간을 가졌으며 강진권 목사, 이호우 목사가 축사하고 류창렬 목사와 이정현 목사가 권면했다.

이어 위임패와 취임패 증정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 찬양하는 하는 일에 하나 되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가 지난 17일 오후 7시 2022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총동문회가 지난 17일 오후 7시 2022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줌을 통해 화상으로 열었다.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린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32회기 회장 김경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경수 목사는 "영생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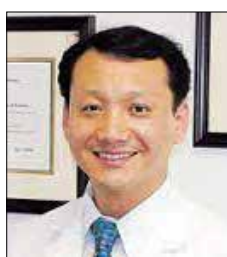
자,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아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동문들이 학교의 발전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일에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정인수 목사 인도로 기도 박경실 전도사, 성경봉독

김정미 전도사, 설교 김경수 목사, 광고 박병섭 목사, 축도 장규준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옥석 목사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레네딕이 하루 빨리 종식돼 미국과 한국 교회들이 대면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한국 대통령선거와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총동문들과 제32기 총동문회 회장 김경수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주요 사업과

(10면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폐결핵

미국에서 결핵은 효과적인 항결핵제가 널리 보급된 1950년대 이후로 1980년대 중반까지 발병률이 꾸준히 줄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계속 늘고 있다. 원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인 에이즈 환자의 증가와 외국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 의학계에서는 한

다 누런 가래가 묻어 나왔다. 몸무게도 3킬로그램 정도 줄었다. 열이 나거나 숨이 찬 증상은 느끼지 못했다. 박 씨는 집 주위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일주일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박 씨지만 몸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박 씨는 10대 후반에 폐결핵에 걸

견되었다. 박 씨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네 가지 종류의 항결핵 약물치료를 시작 했다. 또 약물치료 시작 후 2주 동안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가족들은 결핵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박 씨의 경우는 처음으로 결핵균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앓았던 결핵균이 재발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노인 결핵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증상도 젊은 사람들이 앓는 결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핵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항결핵제의 개발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

쉽게 피곤하고 식은땀에 기침과 가래

동안 잊었던 질환인 결핵, 특히 현재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 퇴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민온 지 15년째 되는 박 모 씨는 올해 60세로 현재는 다운타운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 있다. 박 씨는 3개월 전부터 몸이 쉽게 피곤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최근에는 잠을 잘 때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기도 했다. 또 기침이 자주 나고 기침을 할 때마

린 적이 있지만 장기간 약물치료로 완치되었다.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젊을 때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고 형도 폐결핵을 앓았다. 박 씨는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고 술은 가끔 마시는 편이다. 박 씨를 검진했다. 혈압은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이고, 맥박은 분당 80회, 체온은 37.4도였다.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폐 좌측 상엽에 침윤(浸潤, infiltrate)이 보였다. 객담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

은 결핵에 대해 오해를 하고 초기에 약물치료를 중단하거나 때로는 민간요법에 의존해 결핵을 치료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약물에 내성이 있는 결핵이 나타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평생 결핵으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결핵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Table with 5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listings.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e.g.,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pastors (e.g., 노재현, 권태진), and contact information. A large heade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is at the top right.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필라델피아에 있는 양의문교회(담임 윤상철 목사)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KAPC 교단소속으로 자격은 교단가입 혹은 가입 결격사유가 없는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 졸업,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이민목회), 이중언어 가능, 미국내 합법체류자로 △이력서(한영)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한영) △자기소개서 △제자훈련 목회경험서와 목회비전 및 계획서 △3인 추천서 △목사안수증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마감일은 3월 21일. www.sheepsgate.org

▲문의: haeoheo@gmail.com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25일(화) 오후 7시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394-7821 총무 김동권 목사

더라이프교회 첫 예배

더라이프교회(유태웅 목사)가 1월 23일 오전 11시 카페가 교회가 된 곳(와플엔스)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다. 장소는 216-21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문의: (646)258-4161, usallm2020@gmail.com

학생자원봉사자 모집

패밀리리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봄학기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할 9학년 이상 학생들을 모집한다. 조건은 △초등학생을 돕고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훈련과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훈련: 1월20일-2월15일, 오후 5시-6시30분(화&목), 2월 16일 5-7시(수) △프로그램: 2월 17일-4월 7일, 오후 4시45분-6시45분(동부시간) 화&목. 줌으로 진행되며 자원봉사 장점은 △대통령 봉사상 수상 자격(영주권이상) △패밀리리치 미션 참여 △지식 영적 경험 나누기 △리더십 개발 등을 배울 수 있다.

▲문의: (201)242-4422

어린이 회복학교 2기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키즈홈(KIDZ HMMS)-어린이 회복학교 2기”가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30분(미동부시간) 6주간 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1-6학년. 등록비는 60달러(둘째와 셋째는 40달러)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한다.

▲문의: (646)300-4790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자

뉴욕교협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욕교협이 주최한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1월 16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며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 기관 단체들이 “2022년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준비위원장 박시훈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이기웅 목사(할렐루야복음화전도대회 준비위원장), 성경봉독 김일태 이사장, 찬양 뉴욕기독교예수신교회, 설교 고한승 목사(뉴저지교협회장), 봉헌찬양 테너 이세현, 봉헌기도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광고 임영건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고한승 목사는 “소망이 되는 교회”(행9:3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



뉴욕교협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순서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한다.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한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목사와 평신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한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한다”며 “2022년에는 뉴욕교협이 지역 교회들의 연합사역을 잘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하례식은 전상희 아내운서(굿TV뉴욕) 사회로 허연행 목사의 시도기도 후 국가제창(바리톤 박성하), 신년사 및 합심기도(김희복 회장), 하례식과 예담소년선교회 모듬북 공연

이 있었다. 이어 내빈축사로 필라델피아 부회장 채양규 목사, 케네디교협회장 김익태 목사, 뉴욕한인회 찰스훈 회장, 뉴욕주상원 존 리우, 뉴욕주하원 론 김, 뉴욕시의원 린다 리와 줄리 원이 했으며 뉴욕기독교예수신교회의 축가와 조의호 목사 축시낭독, 단체장 신년메시지(뉴욕청소년센터 김준현 사무

총장, 대한체육회 김일태 전 회장, 뉴욕한인경찰협회 박희진 형사)로 이어졌다.

이날 시상에서 목회자상에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 평신도상은 정권식 장로(뉴욕장로연합회 다민족선교대회준비위원장)가 받았으며 한문수 목사의 마침기도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이날 식사는 뉴욕성결교회(이기웅 목사)가 도시락으로 준비했으며 이사회는 참석자들에게 벽시계를 선물했다.

한편 이날 교협주소록도 배부됐다. 지난회기에는 수첩만 발행했으나 이번 48회기는 연례대로 책자와 수첩을 병행 발행했다. 또 지난회기 헌법수정에 따라 “뉴욕기독교연합회”가 되면서 287개의 뉴욕교협 회원교회들만의 정보를 담은

주소록은 교협 사무실(718-279-1414)에서 배부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미시오신학교와 MOU를 맺었다. 왼쪽부터 박정봉 이사, 정기태 학장, 김성국 학장, Mangum 학장, 오창훈 교수.

동부개혁장신(Th.M) 미시오신학교와 MOU

공동학위 인정...5과목 영어수업 필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미시오신학교(구 비브리컬, 총장 프랭크 제임스)와 MOU를 맺고 공동 학점 및 학위 인정을 하게 됐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큰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타 신학교와 협력을 통해 복음의 전진을 이루려 한다”며 “동부개혁의 새 비전으로 선교적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신학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선교필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 MOU 체결은 그 혁신을 향

해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부개혁장신은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Th. M과정(설교학)을 개설했으며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MOU 공동학위를 위한 과정은 동부개혁장신 Th. M과정 5개 과목과 미시오신학교에서 5개 과목(영어수업)을 해야 한다. 다만 모든 Th. M과정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만 공동학위를 받게 된다. 학비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학교는 MOU 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11월 9일에 학장 정기태 목사와 이사 박정봉 장로가 미시오신학교를 방문, 총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구두로 MOU를 합의했으며 내용을 조정해 이날 체결식을 갖게 됐다.

체결식에는 학장 김성국 목사, 학장 정기태 목사, 이사 박정봉 장로와 미시오 Dr. Todd Mangum 학장, 아시안 담당 오창훈 교수가 참석했다.

미시오신학교는 2018년 이름을 바꾸고 캠퍼스를 필라델피아 시내로 옮겨 커뮤니티 선교중심 비전을 세웠다. 이후 타 신학교와 공동학위 프로젝트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동부개혁신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오창훈 교수는 “동부개혁 출신 학생들이 실력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이었다”며 자신이 KAPC 교단에서 목사고시를 치를 때 많은 동부개혁장신 출신들과 교제하면서 그 우수성을 알게 돼 이번에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와 미시오신학교의 Th.M과정 공동학위 위대한 문의를 학장 정기태 목사(917-733-7387)나 신학교 사무실(718-463-7163)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동노회 2022년 신년하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2022년 신년하례예배가 줌으로 열렸다.

KAPC 뉴욕동노회 가든노회 신년하례예배

뉴욕동노회 대면예배로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 중 뉴욕동노회가 유일하게 대면으로 신년예배를 드렸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린 2022년 신년하례예배는 신철웅 목사 인도로 기도 문신인 목사, 설교 이규섭 목사, 광고 문덕연 목사, 축도 조영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이규섭 목사는 “요한이 됩시다”(요1:19-2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례요한에 대해 사람들은 1)내가 그리스도냐 2)왜 세례를 주느냐 2가지 질문을 했다”며 이에 대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며 자신은 길을 곧게 하는 역할로, 그 길은 예수님께 향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또 자신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를 언급하며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규섭 목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세대에 우리 목회자들은 초지일관 사명을 감당한 요한처럼 광야의 소리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하고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합심기도는 △요한이 되자 △코로나바이러스 속에서 승

리하자 △조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선교의 길이 회복되길 등의 제목으로 진행했다.

예배 후에는 신년덕담 순서를 맡은 김남수 목사, 조문휘 목사, 황상하 목사, 장기수 목사는 펜데믹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노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오늘 설교를 공감하며 덕담을 전했다.

김남수 목사는 “개혁주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조문휘 목사는 “세상 정치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이 격리시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말했다.

황상하 목사는 “풍성한 영적 생명력을 얻기 위해 자기부인을 하고 영혼을 맡게 하자”고 말했다며, 장기수 목사는 “뉴욕동노회는 칭찬할만한 무게감 있는 노회”라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이어 노회원에게 선물을 증정했으며 참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하며 친교시간을 가졌다.

가든노회 줌 화상으로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노회장 조성훈 목사) 2022년 신년하례예배가 1월 10일 오전 10시30분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렸다.

예배는 부노회장 박해창 목사 인도로 찬양인도 김기환 목사, 기도 부회록서기 김지희 목사, 성경봉독 박형기 목사, 설교 노회장 조성훈 목사, 통성기도,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서기대행 이준성 목사 순서로 진

행했다. 노회장 조성훈 목사는 “찾아 오시는 하나님”(왕상19: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진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희상회 목사 △코로나 상황의 빠른 해결을 위해/김재호 목사, △총회와 노회, 지교회들을 위해/이종식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신년하례예배 및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됐다.

(9면에서 계속)

행사(웹블로그, 신학교 장학금 후원, 동문선교사 후원, 동문주소록 발간, 총동문회 밤, 세미나, 문화행사, 정기총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OC교협 제3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왼쪽아래 원 안 왼쪽부터 박성욱 임목회장, 심상은 신임회장, 신원규 신임이사장, 이호우 이임이사장

“교회다운 교회로 연합” 심상은 목사

OC교협 제 3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사장 신원규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31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월 13일 오후 5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심상은 회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교회가 건강하게 뜨겁게 교회답게 될 때 세상을 살릴 때 세상이 교회를 걱정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기준을 교회에 두고 있을 것이다. 도덕 레벨을 올려 교회다운 교회로 연합했으면 좋겠다. 둘째, 한 팀인 것 확인해나가겠다.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은 공동체임을 확인해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교인이 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 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협사역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신원규 목사는 “회장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위치가 이사이다. 교회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회장을 잘 도와 나가겠다. 이사장 위치에서 잘 섬기겠다. 또한 교협회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정관 2장 6-8조 가입 각 교회로 회원 정했다. 교협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인회장, 시장 검찰총장을 위해 기도하는 교협이 되겠다.”

박성욱 목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에 빠져있던 30여 개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이 보람되고 감사했다. 지역사회 신뢰받는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말하며 “OC지역 교회와 목사들이 거짓 없는 사역을 하고 거짓 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되고 귀한 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모세 목사(OC교협 부회장/오렌지힐스한인교회)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박성욱 목사가 이임사, 심상은 목사가 취임사 했으며 신원규 목사(좋은 마을교회)가 이사장 취임사를 했다.

이어 30대 교협회장 박성욱 목사와 이사장 이호우 목사에게 공로패와 심상은 목사와 신원규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후원이사장과 후원이사들에 대해 추대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축사 시간에는 토드 스피쳐 OC검찰총장, 권석대 OC한인회장, 지용덕 남가주교협 증명회장, 최완기 목사(전 AG한국총회 총회장), 황치훈 장로(직전 OC장로회 회장), 김일권 목사(AG한국총회 서남부지방회장), 서니박 부이나파 시장이 축사했으며 미셸스틸박, 영김연방하원의원, 최석호 거주하원의원, 김남수 목사(뉴욕프라미스교회 원로)가 영상축사가 소개됐다.

이후 주일업 교수가 바이올린 특주를 했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갈보리찬양팀 찬양인도와 박재만 목사(OC교협 부회장) 사회로 김근수 목사(OC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윤우경(OC전도회연합회 이사장)이 성경봉독, 이화여성삼중창의 특별찬양, 한기홍 목사가 ‘주님의 이름은 높이는 사역이 됩시다(행3:1-10)’라는 제목의 설교한 후 아이노스 선교단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윤성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강사 박성일 목사 5개 주제 강의 인도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성경해석 세미나 열어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총회장 신원규 목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이라는 주제의 목회자세미나를 갈보리 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성일 목사는 △제1강의: 구약사적 성경해석의 역사적 의미 △제2강의: 성경의 구약사적 개요 △제3강의: 설교는 최고의 신학 작업이다, △제4강의: 나의 설

교 준비 및 전달 △제5강의: 개혁주의 성향의 설교자들의 설교 유형 분석 등 5개 주제의 강의를 인도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신원규 목사는 “이민성도들을 섬긴지 39년이 됐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영적 지적 고갈이 있음을 느끼게 됐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며 “이러한 고갈된 것들을 채우고 싶어서 귀한시간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복음주의장로교회 총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 세미나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CMF 신년하례예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가승리비결

CMF선교원 신년하례예배 “말씀과 찬양” 으로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지난 1월 8일 정오 CMF선교원 회관에서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예배드리기 전 김인태 전도사가 인도하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김인철 목사(오렌지 가나안장로회)가 대표기도하고 Charis Christian Chamber가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불렀다.

이어서 염영민 목사(오렌지 카운티제일장로교회 원로)가 감사로 영광을 드높일지어다(대상 16:23-2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염영민 목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조건부로 감사의 삶을 살지만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며 고난을 극복한 신념이다. 이는 승리의 비결이며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가 격려사와 축사를 하고 김창호 목사(문서선교사)가 5분 간증을 하고 염영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22 KAPC 목사장로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가 주최하는 2022 KAPC 목사장로기도회가 '기도는 목사 먼저, 장로 먼저' 라는 주제로 2월 14일(월) 오후 5시부터 16일(수)까지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용철 목사)에서 열린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부와 장로부부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의 강사는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이며 등록은 forms.gle/ayE6wDa3PrusxjUGA로 하면 된다.

▲문의: (702)296-9193, (336)430-8749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한인 종교지도자 및 커뮤니티 리더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온라인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은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주간 줌을 통해 실시하며 40시간 교육과정을 마지면 과정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 △청소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지원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안전대책 △법률지원 등이다. 연방정부 후원으로 무료 진행되며 등록은 https://tinyurl.com/DV40hrs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jwoo@kfamla.org 혹은 mlee@kfamla.org로 하면 된다.

▲문의: (213)235-4848

비영리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은 비영리단체 설립과 Tax Exempt 등 비영리 단체 운영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28일(금) 오전 10시 GMU LA 학장강의실(317 W. Palmer Ave., Glendale, CA 91204)에서 공개강의를 통해서 소개한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비영리 단체 설립 및 IRS와 주정부로부터 Tax Exempt 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강의한다.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무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이며 참가는 20명으로 한정한다. 온라인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GbQFM-L4dF1kMEsdVf1gy-BibNt0Ijj53FYqEjUBRDvThg/viewform

▲문의: (714)525-0088(Ext 101)

휴스턴순복음교회 부흥성회

휴스턴순복음교회(담임 홍형선 목사) 부흥성회가 1월 21일(목)부터 23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

▲문의: (713)468-2123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혜성 목사)는 중고등부 사역자(파트타임)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목회학석사 또는 과정 중(한국이나 미국에서 보수적인 정규신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인 학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남, 여)이며 초등부, 중고등부 또는 대학 청년부 사역 경험이 있는 자. △사역 내용은 주 2회(매주 금요일 저녁, 주일예배보임) 및 연례 수련회, 기타 교회행사에 필요시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서류는 이력서 1부 및 가족사진, 신앙 및 사역 간증문(배우자에 대한 소개 포함), 졸업 및 재학증명서이며 사례는 월 2천 달러. 접수기간은 1월 31일(주일)까지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nfcus@hotmail.com)로만 받는다.

▲문의: nfcus@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813-4499, www.lfpc.com 1720 S.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roadwa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23)373-3009, Ce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d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정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유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스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373-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선교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화-토)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으로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isfamil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새벽예배: 오전 7:20(토)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토 마 예 배: 오전 9:45 (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348, dcbk.km@bc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학대 입시 충격...고강도 구조조정 시급

국민일보, 올 8개대 신학과 정시모집 경쟁률 보도

올해 주요 신학대 상당수 신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다(표 참조). 서울신학대 신학과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미달됐다. 경쟁률 저하는 신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우수한 목회자 양성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교회의 건강성장을 저해한다. 정원 감축, 커리큘럼 변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11일 주요 신학대 8곳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결과를 취합한 결과 절반만 정원을 넘는 학생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에 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총신대학교 신학과는 2.68대 1, 예장통합 소속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는 1.81대 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한세대학교는 1.58대 1,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1.13대 1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지원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는 0.57대

1을 기록했다. 1959년 개교 이래 최초의 미달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한신대학교 신학과는 32명 모집에 11명 지원해 0.34대 1을 기록했다. 예장고신 소속인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0.19대 1을 기록했다. 모두 27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감리교신학대는 “비공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신학자는 “신학과 경쟁률은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인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처참하다”고 했다.

교계에서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원 감축이다. 예장통합 소속 A목사는 “지방 신학대들은 ‘만학도 전형’으로 겨우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학생 수준까지 담보할 수 없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정원을 억지로 채우는 게 중요

한 게 아니라 신학대와 신학대학원 정원과 목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학대 통폐합 같은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교 교육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신학교 교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빼고 다 바뀌어 한다. 교회 안팎의 청년들은 인공지능(AI)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고 묻는데 수세기 전 조직신학 책으로만 강의해선 교육도, 목회도 되지 않는다”며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신학교가 사회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과 정원 미달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회의 쇠퇴 속에 예상되는 흐름이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고 표류하는 데 있다는 진단이다. 수도권 한 신학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교회는 사회에 희망과 위로를 주기보다는 대면예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내는 이기적 집단으로 비춰졌고 그나마 머물던 청년들마저 교회를 떠났다”며 “교회가 복음과 돌봄이라는 목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목회자 양성 · 수급 조절 · 학연주의 극복

기감 산하 3개 신대원 통합 운영안 합의, 2024년 2월 목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제34회 총회 임법의회에서 비중 있게 논의한 이슈 중 하나는 교단 산하 신학대 3곳(감리교신학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합치자는 안건이었다. 당시 회의에선 반대 뜻을 표시하거나 회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palpable.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회원이 325명으로 반대한 회원(53명)보다 6배 이상 많았다. 현재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으며 기감은 왜 이들 3곳의 대학원을 하나로 합치려는 걸까.

11일 기감에 따르면 최근 신학대학원 통합 이슈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물꼬가 터진 시기는 지난해 7월이었다. 3개 신학대 대표들은 춘남 천안에서 모임을 갖고 통합 운영안을 수용

키로 합의했다. 기감은 지난달 21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신학대학원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교역자 수급 규모를 조절하고, 지금보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합치면 ‘학연 파벌’을 인연 교단 내 갈등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통합 로드맵은 임법의회에서 통과된 ‘3개 신학대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담겨 있다. 기감은 2024년 2월까지 ‘웨슬리 신학대학원’(가칭)을 ‘통합 또는 설립’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준회원 허입 및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들

어갔다.

물론 신학대학원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예산과 설립 장소 문제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 저촉 여부도 살펴야 한다. 교수진 조정도 난관이 될 전망이다. 과거 해당 법령 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목회자는 “교수들의 전공이 겹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감은 신대원 통합이 이뤄지면 좋은 인재를 뽑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은 10일 기감 본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개 대학이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인재를 뽑으려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진로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원이 하나로 통합되면 교단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장로교 일치 운동에 힘쓸 것”

한영훈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에 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11일 서울 구로구 서울한영대에서 제39대 대표회장 취임식 및 신년 하례식을 갖고 한국 장로교 일치 운동에 힘쓰기로 했다(사진). 한영훈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회는 문명사적 전환과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팬데믹으로 전도와 선교가 위축되고 예배의 거룩함이 훼손됐는데 다시 한장총을 중심으로 예배 전통을 회복하겠다. 연합기관이 하나 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장은 설교에서 “평에 물질 교권 등 썩어질 육체를 탐하지 말고 복음의 생명을 전하며 희생,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예배에는 피종진 이영훈 소강석 목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한장총은 합동 통합 백석 등 26개 장로교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4만 3791개 교회, 810여만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다.

“29+11”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4월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돌입한 분당우리교회는 당초 지난해 말 중순, 운동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공개한 ‘4차 중간보고’를 통해 다각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그 시행을 오는 4월 첫째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 시대 가정엔 저녁이 중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 가족저녁예배 제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에서 ‘저녁 시간’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17일 경기도 양평 센터에서 열린 ‘가정사역 캠퍼런스’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새벽기도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또 다른 유산인 저녁기도로 돌아서야 한다”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의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며 교회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가정만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며 “이는 가족들이 예배, 교제, 공동의 취미 개발을 통해 신앙의 변곡점을 마련할 기회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 생태계 회복하자”

예장합동,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힘찬 출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는 지난해 3월에 시작된 ‘프레이 어게인’에 이어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4월까지 163개 노회와 1만1700여개 교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기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세속화 현상의 골짜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었던 데 덮친 격으로 피폐해진 교회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 격려하는 동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문을 닫는 교회들과 절망하고 있는 전국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뿔뿔이 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도운동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본부장을 중심으로 고문은 이승희 김중준 소강석 목사 등 최근 총회장을 역임한 중진들을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오정현(사랑의교회) 이규현(수영

로교회) 최남수(광명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목사 등 대형교회 담임목사들과 교단 산하 연합단체장들로 구성했다.

임원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부분부장과 실무위원들을 세웠으며, 다시 14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본부장을 세웠다. 합동 교단은 해외 3개 노회를 포함해 모두 163개 노회인데, 노회 조직을 기도운동본부 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했다.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은 1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기도의 불길을 일으킨다. 이어 2월과 3월에는 163개 노회로 번져나가 4월에는 총회와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꽃으로 뒤덮을 계획이다.

기감, 젊은 표심, 선거판 흔들까

선거법 개정 후 첫 감독선거 9월 24일로 잠정 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일이 오는 9월 24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뒤 치르는 첫 선거다. 교단 안팎에선 선거법 개정이 감리교단의 선거 문화를 바꾸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기감에 따르면 기감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11개 연회 감독 선거일을 토요일인 오는 9월 24일로 잠정 확정했다. 투표는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을 토요일로 정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선거관은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선거 시행세칙 등을 정할 계획이며, 전체 모임은 다음 달 10일 갖기로 했다. 선거위원장을 맡은 최승호 전 남부연회 감독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엄중한 시기에 선거관을 이끌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감독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의 영향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다. 과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몸살을 앓았던 감리교단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4회 총회 임법의회를 통해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를 도입키로 했으며, 예비 등록 이전에는 SNS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했다.

이 밖에 합동 정책 발표회도 수차례 진행키로 했다. 후보들은 선관위가 정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부조할 수 없으며, 평신도 선거권의 15%는 여성에게 할당된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보다 더 주목할 만한 조항은 유권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내용이었다. 기감은 그동안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규정돼 있던 선거권 규정을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본 사역 부담

기감, 미디어전략팀 구성 교계이슈 적극대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교계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교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전략팀’을 만들기로 했다. 17일 기감에 따르면 미디어 전략팀은 기감 본부에 만들어지는 기구는 아니다. 본부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팀을 본부에 신설할 순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 전략팀은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진

뒤 본부를 조력하는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기감 관계자는 “교계 이슈에 적극 대처해 감리교단이 교계에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취지에서 미디어 전략팀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이 “목회자들의 언론 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목회자들이 언론에 소개되는 모든 교계 뉴스를 모니터링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미디어 전략팀은 일주일에 1회 정도 교계 뉴스를 정리해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전략팀 신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철 기감 감독회장이 지난 10월 열었던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이 감독회장은 “사회 이슈와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와 목회자들을 위한 구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총, 2022년 이웃돕기로 시작

해돋는마을 노인대학과 서울역노숙자치유센터에 방한용품 전달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가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로 시작했다.

세기총은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

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2022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사)해돋는마을 노인대학(장헌일 목사)과 서울역노숙자치유센터(김진복 목사)에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기도, 후원이사 장정일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가 ‘하나님의 손’(시편 118:15-16)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심평종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2022년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시며 한국교회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손길이 펼쳐지기를 믿는다”고 전했다.

또 심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라며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



‘2022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나눔에서 이 한해 결실케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며 “우리를 향하여서 이 권능의 손을 통해 치료받으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공동회장 성두현 목사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3·9 대통령 선거를 위해’, 공동회장 장인수 목사가 ‘세기총의 모든 멤버들과 전 세계 지회장을 위해’, 후원이사 김관중 목사가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으며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사제공: 세기총)

mission 선교의 창 (18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

천지가 창조된 이후 세상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메시아 탄생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다. 그 기록은 누가복음 1,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4가지 찬양이 나온다. 마그니 피카트(Magnificat)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눅1:46-55), 베네딕투스(Benedictus)라고 부르는 사가라 노래(눅1:68-79), 영광송(The Gloria in Excelsis)이라고 부르는 천사의 노래(눅2:14),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라고 부르는 시므온의 노래(눅2:29)이다.

눈크 디미티스의 뜻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또는 바로 지금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소서”로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본 시므온이 감격에 겨워 찬송을 한 내용이다(눅2: 29-32).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한 분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한 시므온의 신앙은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보다 아예 주님이 영으로 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많을까?

1. 메시아를 대망해 온 시므온

시므온(Συμεώ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다. 이러한 이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었다. 성경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율법을 충실히 준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다. 시므온은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은 채 감격에 겨워 찬양을 했다. “눈크 디미티스(Nunc Dimittis)!”

2. 시므온 찬양의 내용

시므온의 노래(눅2:29-32)는 마리아의 노래(눅1:46-55), 스가라의 노래(눅1:67-79)와 더불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3대 찬미가라 불린다. 우

없다(29) 라는 뜻이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30).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전에 절망만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전에 들어가니 뜻밖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소리 높여 찬양을 하였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31,32).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과, 이분은 앞으로 이방의 빛이 되며 패함과 흥함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34), 아울러 아들로 인하여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35).

3. “눈크 디미티스”를 고백한 사람들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1926-1967)은 “재즈의 성인(聖人)”이라 불리는 재즈 색소

네덜란드 화가이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그는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관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1669년에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다. 끝내 그는 이 그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었고 사후에 제자들이 완성했다. 이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시므온의 얼굴에 투사했음을 보게 한다. 나아가 그도 시므온처럼 세상욕망 다 비우고 주님께 나아 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느끼게 한다.

4. 세상에 미련이 많은 크리스천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떠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가? 주님께 절대 가치를 부여하며 언제 별세해도 여한이 없는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뒤집힌 가운데 지금 우리는

감격이 없는 종교생활은 회칠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다.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셋째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이다. 시므온은 오순절의 성령강림 전에 이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은 필멸된 생활일 수밖에 없다.

맺음 말

눈크 디미티스! 이 말은 온 생명을 바쳐 자신의 임무를 다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백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이제야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을 했다.

존 콜트레인은 32분간의 열정적인 인생 연주를 마치고 이 한마디로 막을 내렸다. 세기의 화가인 렘브란트 역시 그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그렸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같은 의미의 고백을 했다.

인생은 누구나 끝이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데 불행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는 만족이 없다. 감격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더 나은 부귀영화를 위해 안달인 사람들이 한 둘이라! 우리는 영안을 열어라 한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시므온이 고백했던 “Nunc Dimittis!”를 외칠 수 있을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눈크 디미티스는 라틴어로서 “이제는 놓아 주소서” 라는 뜻이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난 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표했다. 신실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이다.

살아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종합해보면 그는 전통적 유대인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메시아, 즉 그리스도(Χριστός)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고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

리는 이 그의 찬양을 ‘눈크 디미티스’라고 한 이유는 라틴어로 된 불가타(Vulgate) 성서에서 이 노래가 ‘Nunc Dimittis’라는 두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눈크는 ‘이제(now)’라는 뜻이며 문장 맨 앞에 강조되어 있다. 디미티스는 ‘허락하신다’(lettest)라는 의미이다.

이 시므온의 노래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 예배에서 불려 왔다. 가사 내용인즉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죽어도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폰 연주자였다. 한때 마약에 취해 살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이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회심한 그는 더욱 신들린 연주를 했다. 그가 한번은 온 힘을 다해 “A Love Supreme” 곡을 연주할 때 수많은 청중들이 그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이때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눈크 디미티스!” 콜트레인이 자신의 영혼을 다 쏟아 최고의 연주를 한 후에 시므온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었다.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은 바로크 시대의

서 있다. 많은 이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자아를 경계하며 시므온의 신과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이다. 시므온은 구약이 언급했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주를 열망하며 살아야 한다. 썩어질 이 땅에 인생의 꽃대를 쫓는 것은 어리석다.

둘째 그리스도로 인해 감격하는 삶이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본 후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음을 고백했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0 아테네를 찾아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시작한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만만치 않았습니. 감옥도 가고 연속적인 소동(행 17:8,13)을 경험하고 급히 도피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길에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어 베뢰아에서도 소동을 만나 뱃길로 도망가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피레아스 항구를 거쳐 아테네로 들어간 것으로 유추합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맹주로서 번성했던 도시이며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현존하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어림잡아도 도시의 역사가 3000년이 훌쩍 넘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헬라문화의 요람이라고 보아도 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헬라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은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기 위하여 전쟁과 지혜의 신인 아테나와 바다와 자연의 신인 포세이돈이 경쟁

했습니다. 인간에게 더 유용한 것을 주는 자가 수호신이 되기로 했는데, 아테나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하고, 포세이돈은 말과 샘을 선물했습니다. 결과는 아테나가 승리했고, 그래서 도시는 아테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아테네에 들어서면 아크로폴리스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헬라어로 ‘아크로’는 ‘높은’이라는 의미이고 폴리스는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의 언덕 혹은 도시의 중심지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헬라문화권에 있는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아크로폴리스하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의미합니다. 파

르테는 신전을 위시한 여러 신전들이 들어선 아크로폴리스는 헬라문명의 상징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성소이자 시민들의 정신적 위안소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크로폴리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 아크로폴리스

고라광장은 도시 회의 장소는 물론 간단한 운동 시합장이었고, 국가나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광장이었습니다. 후기 그리스 시대에는 상인들의 노점들이 들어서고 아고라 돌레에 고정된 상가들이 들어서서 공공 시장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시민들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는 아테네 대법원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신의 딸(알키페)을 겁탈하는 포세이돈의 아들(할리로티오스)을 현장에서 살해합니다. 당시 제우스에 버금가는 힘을 가졌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열두 신들이 이 언덕에 모여서 재판장을 합니다. 문헌에 나타난 역사상 최초의 재판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이 언덕을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로마의 원로원처럼 고대 그리스의 귀족들이 사법적인 결정을 했던 장소요 기관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아크로폴리스 언

점령했던 사실을 전합니다. BC 5세기경 솔론이 아테네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아레오파고스는 민주주의 실험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경청과 배려를 연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테네 시민법정 기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던 시기에 아레오파고스는 모든 종교적, 정치적 사건을 재판과 교육감독도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나 사상의 도입을 아레오파고스에서 필터링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스에 초청강사가 되어 설교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불러 아레오파고스로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행17:19)” 바울에게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할 기회를 잡습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입니다. 복음과 바울의 헬라문화에 대한 소양이 아테네를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기독교 역사는 물론 인류문화사에 찬란히 빛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적 문화의 산물인 이 설교내용은 다음 회에 다루겠습니다.

chap1207@hotmail.com

종교적 정치적 사건 재판과 교육 감독하는 아테네 시민법정, 아레오파고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용례에서 아크로폴리스는 민주주의 요람이나 민주광장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아고라의 의미는 ‘모이다’입니다. 아고라도 고대도시마다 있었던 ‘시민들의 회의의 장소’였습니다. 이 아

고라광장은 도시 회의 장소는 물론 간단한 운동 시합장이었고, 국가나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광장이었습니다. 후기 그리스 시대에는 상인들의 노점들이 들어서고 아고라 돌레에 고정된 상가들이 들어서서 공공 시장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 시민들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덕과 아고라 광장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전이 즐비하게 늘어진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인간 군상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절묘한 곳에 인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정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歷史家) 헤로도토스(Herodotos)는 자신이 쓴 인류 최초의 역사책 ‘역사(ιστορία)’에서 아레오파고스를 언급합니다. 페르시아 군이 침략했을 때 아레오파고스를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 생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사랑하며 삽시다(출20:1-17)찬220장

시나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나라의 국민'에게 주시는 '하나님나라의 국법'입니다. 그 율법의 주요 골자는 10계명이며 목적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랑은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출20:3)찬212장

본문의 정확한 구절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파님(얼굴)'이라는 단어와 '하야(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대일로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

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며, 그분과만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그 무엇'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수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출20:4-6)찬214장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물건이기에 궁극적으로 우상은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목적인 '나 자신'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되 육신의 소욕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내 중심, 내 욕심, 내 권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출20:7)찬20장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

라고 하셨습니다(마5:34-37).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도들로 인해 모독을 받습니다(롬2:24).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출20:8-11)찬43장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날'을 구별해 지키라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안식'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 '휴식'이 아니라 '생명누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식일은 창조 일곱 번째 날입니다(창2:1-2).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셔서 안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피

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막2:27).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안식'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 속에 표식으로 새겨놓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주일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삶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토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찬220장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강령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부모공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출산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합

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의 공경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현금을 명목으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막7:11-13).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이 이웃과 나누어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엡6:1-3)

교회음악 이야기(6)

거룩 거룩 거룩!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 AD 32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약250여년(AD 64-313)동안 심한폭정에 시달리다가 313년 밀란칙령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이후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최초의 종교회의(First Council of Nicaea)를 갖게 됐던 뜻 깊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회적으로 큰 위기로 혼돈의 뿌리가 되었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를 재확립, 정돈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리우스(Arius, 250 or 256 - 336)가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단지 인간일 뿐이고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동방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소위 "아리우스파"가 형성되어 기독교계에 일대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타나시우스(St. Athanasius, 300-373)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 전통신앙을 앞장서서

이 찬송의 소재가 된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을 모셔 선 스랍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사6:3), 사도요한이 환상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드리는 찬양(계4:8-11)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공통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가장 본질적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거룩(Holy)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스랍들이, 또 네 생물이 하늘과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일이 그들의 고유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교리입니다.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가 쓴 "기

바른 예배와 찬양을 위해 본질을 고수했던 역사 속 믿음의 선진들의 현명함을 배우라...

변호하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명확한 신앙고백으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당성을 굳건히 세워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 이론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이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뿌리가 된 니케아 신조(Nicaea Creed)가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송영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Nicaea"라는 부제 목이 부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에 목적이 담아 영국성공회 주교이자 문필가, 찬송작가였던 레지널드 히버 Reginald Heber(1783 - 1826)가 이 곡의 텍스트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지널드는 당시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시인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인도 캘커타 주교로 사역을 하다 42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곡은 그의 초기 목회 사역지였던 영국의 시골 마을 슈프셔 호드넷(Hodnet, Shropshire, England)에서 1807-1823년 사이에 쓴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4장 8-11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사통상문 "거룩 Sanctus"를 참고로 해서 그가 찬송가의 가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영국의 찬송작곡가인 존 바커스 다이크스(John Bacchus Dykes, 1823-1876)가 1861년 Hymns Ancient and Modern의 초판을 만들면서 이 곡을 포함시키기 위해 작곡을 했고 그것을 통해 회중들에게 널리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교강요"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관계되는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적이며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거룩"을 외치는 모습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각각의 경배,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교리를 기억하고 매 순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배의 중심 내용이 되어 찬송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삼위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으로 종결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예전을 통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예배와 찬송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저항해야 할 일은 예배와 찬양에 대한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역사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발견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바른 예배와 찬양을 위해 본질을 고수했던 역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현명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흔들림 속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했던 성자 아타나시우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삼위일체 찬송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했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표현하여 가사와 곡을 썼던 레지널드 목사님과 존 바커스 목사님.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iyoon@wmu.edu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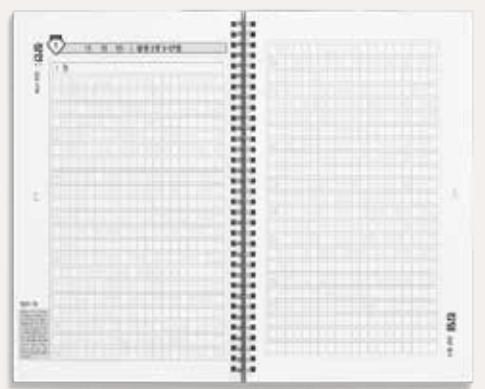


교회 단체 주문시 교회로고로 바꿔 드립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p@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보세요.



(청소년용)



영역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보세요.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21)



뉴저지밀알선교단 여름캠프

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 운영

장애인들이 꾸준히 재활하여 좀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 병원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도 마련하여 탁구나 배구, 볼링, 배드민턴 등 체육도 함께하게 한다. 수영은 재활치료에 좋은 도구이다. 수영장도 운영하여 건강 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게 한다.

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회사 운영

장애인에게는 단순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많은 장애인에게는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도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교육회사, 컴퓨

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컴퓨터회사, 로봇과 재활을 연구하는 로봇회사 등이다. 장애인들에게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체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나는 유기농 식품은 건강식으로 밀알 동산 식구들의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남은 식품은 시중에 팔아 지역사회에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 그 농장에는 꽃도 가꾸어 팔아 정

주어 자신의 달란트를 발달시키도록 한다. 미국에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세계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나라의 헬렌 켈러가

헨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장애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 발견 뉴저지 밀알선교단은 하향성 정신 잊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할 것

오히려 다른 나라 장애인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다: 장애인을 위한 농장운영

땅을 밟고 식물과 동물을 기르며, 햇볕을 쬐며 일하는 농장은 수입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

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농장이다.

라: 헬렌 켈러 프로젝트 운영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평생 보호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되게 한다. 그것은 장애인들뿐 아니라 건강하지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것이다.

제 10절 4장 결론

하나님나라 복음은 뉴저지

밀알선교단 사역에 확실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그동안 하나님나라 복음의 통전적

하나님나라 복음 사역임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헨리 나우웬의 사상과 실천을 통하여 무력하게 보이는 장애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뉴저지 밀알선교단이 아무리 커지고 강해져도 언제나 하향성의 정신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것을 배우게 된다.

miju92@gmail.com

‘킹덤 성경필사본’ (잠언) 제작 본지 자매출판사 ‘히스핑거’ 발행

본사 자매 출판사인 ‘히스핑거’에서 ‘킹덤 성경필사본’(잠언)을 발행했다. 최고급품 양질의 종이를 사용해 노트 크기로 제작됐다.

우선 이번 성경필사본은 2022년 신년을 맞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필사에 사용됐다. 퀸즈장로교회는 “새해에는 킹덤성경필사로 새 은혜를 써 내려갑시다”라는 표어로 누가복음 1장 2절(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을 주제로 삼고 성경필사를 시작했다.

한글판과 영어로 안내하는 판 2가지로 제작해 2세들에게 한국어 연습도 겸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킹덤 성경필사를 출간하며 발행인 김성국牧사는 “깨달아 새기고”라는 제목으로 “이스라

엘 성지여행 중에 사해 근처의 쿨란이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쿨란은 1947년 그곳

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에 새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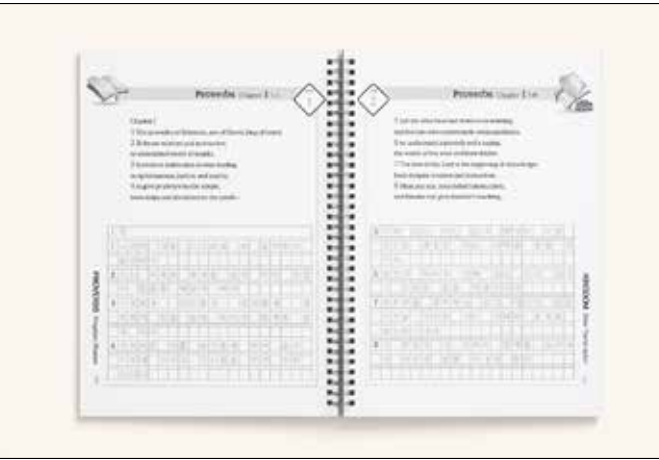
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바른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행 준

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길로 가려는 손글씨 성경 쓰기 운동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그 자



동굴의 향아리 속에 담겨 있던 성경사본을 발견한 장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곳은 정결 의식을 행하던 목욕탕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씻고 성

아 바른길을 걸었던 것입니다”라며 “2022년을 맞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



비되었나요? 이제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출발합니다”라고 성경필사를 독려했다.

성경필사 마지막에는 ‘필사 노트 활용에 대해’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

체로도 보람되지만 사실 그 진짜 목적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표지에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시작한 날과 마친 날을 기재하세요. △오늘의 날짜를 기

재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성경 쓰기 분량을 따라서 쓰세요.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보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 쓰고 한글을 예쁘게 쓰는 연습까지 동시에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필사해보세요. 라며 안내하고 있다.

펜데믹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도 했지만 또 여전히 바쁜 일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잠언은 믿음이 없어도 쉽게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 전도용으로도 권장 받는다.

또 어르신들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치매예방 효과도 볼 수 있기에 가벼운 선물용으로도 환영받고 있다.

가격은 권당 10달러. 1천부 이상 주문하면 자체 교회나 단체 이름을 게재할 수 있다.

▲문의 및 주문처: 718-8864400

〈유원정 기자〉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양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터/뷰

올림픽장로교회 2대 담임 이수호 목사

감리교 목사가 개혁신교회 담임목사로... “하나님의 은혜”

미주내 한인교회들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많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이민한인사회의 역사가 1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교회 역시 세대교체를 준비하거나 시행

지난해 12월 12일 올림픽장로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수호 목사는 “LA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것은 단지 립(lip)서비스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정들이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단은 신학과 교단이 전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들었다.

“저는 학부와 석사를 감신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장로교회는 북미주개혁교단(CRC)이라 신학이 다릅니다.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교는 침례교재단이라 CRC하고는 맞지 않지요. 하지만 CRC는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단 중 중도적인 입장에서 있으며 저 역시 감리교신학을 배웠지만 중도적인 입장이라 CRC교단에 대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장로교회는 2017년 12월 청년부사역자로 청빙돼 사역을 했고, 그러다 담임목사 직분까지 받게 됐는데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과정들이 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LA로 오게 된 것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였다. 특별히 유대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이 목사는 감신대를 졸업하던 2009년 미국으로 오게 됐다. 당시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며 다

음시스템을 준비하던 중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크라이스트 포터네이션스(Christ for the Nations) 수료과정을 거쳐 앨라배마 오번시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 2014년부터 3년간의 오번시 사역을 마친 후 2017년 남가주로 돌아온 그는 올림픽장로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다.

“남가주로 돌아온 이유는 당시 하브루타 세미나가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는데 담당자가 군대 군종병 동기인 이성준 목사였어요. 어느 날 이

하고 있다. 그중 1세대 목회자가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후임목사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된 교회가 있다. 바로 올림픽장로교회 이야기다.

었는데 어느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목회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 같았다며, 자신의 경험과 동료와 선배들의 이야기에 의존하려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청빙제의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사역지라 여기가 됐고 올림픽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이라 믿고 사역을 하게

런지 청년들도 슬로건을 내걸고 정의를 부르짖는 목회를 선호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LA는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상처가 많은 곳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심하게는 형편상 4명의 형제가 있는 청년의 경우 4명의 형제 모두가 이복형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LA 한인타운의 사역인거 같아요. 그야말로 기다림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 LA로 오지 않고 다른



이수호 목사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말하며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림픽장로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이 목사는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말했다.

“교회가 확장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합니다. 즉 올림픽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저가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와 이민교회들이 본받게 되는 교회, 반면 사역의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실수들은 반면교사로 삼게 되는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회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만민이라도 주님 앞에 신실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수호 목사는 성남 한술고를 졸업하고 감신대학교에서 학부(BA)와 신학석사(Th.M)를 취득했으며 현재 미드웨스턴신학교에서 교육학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가족으로는 감신대 동기이자 아내인 송한미 분 교회 유년유치부 전도사, 아들 원빈(5세), 딸 세빈(4세)이 있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텍사스), 오번(앨라배마), LA(캘리포니아) 3곳 사역지 전역 다른 달라 아픔과 상처 감싸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현장 LA...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기다림의 목회' 정진길...

목사의 연락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이 목사의 연락을 받을 즈음 올림픽장로교회 청년부 청빙제 의도 받게 됐습니다.”

앨라배마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다음 사역지를 모색하던 어느 날 기도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이 목사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앨라배마에서 사역을 마친 후 다음 스템을 구상 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역이 시작되고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와 앨라배마 오번 그리고 캘리포니아 LA라는 각각 다른 세 곳에서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다른 만큼 많은 것들이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다른 나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앨라배마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고 교육의 도시라 그

곳으로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수호 목사는 “아마도 교만과 기회주의로 충만한 목사가 됐을 것”이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미시건의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LA에서 만남을 가진 영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군요.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

다면 네가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목회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목사는 전임 정장수 목사가 담임목사를 물려주며 했던 당부의 말에 대해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 언급했다.

이 목사는 “정 목사님께서 목사가 목사인 것은 성도들이 일하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에 때문이며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고 기도

Advertisement for '기독교 문화사역' (Christian Cultural Ministry) featuring Hisfinger Media and YouTube search instructions.

Advertisement for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MIAEPC Pastors' Academic and Qualification Exam) with details on application, exam content, and registration.